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모리 오가이(森鷗外)의  
『기러기(雁)』 연구  
- 등장인물에 투영된 작가의 삶 -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本語教育專攻

康 恩 實

2017年 2月

모리 오가이(森鷗外)의  
『기러기(雁)』 연구  
- 등장인물에 투영된 작가의 삶 -

指導教授 金成俸

康恩實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6년 12월

康恩實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16年 12月

<국문초록>

모리 오가이(森鷗外)의 『기러기(雁)』 연구  
-등장인물에 투영된 작가의 삶-

강은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본어교육전공

지도교수 김성봉

모리오가이(森鷗外:1862-1922)는 군인이면서도 평론가, 번역가, 소설가, 시인 등 문학적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있어 왕성한 활동을 펼친 일본근대 문학의 선구자이다.

그의 작품 『기러기』는 잡지 「스바루」에 1911년 9월 1장에서 1913년 5월 21장까지 연재되었으며, 그 후 2년이 지난 1915년 5월에 22장에서 24장까지 더해지면서 단행본으로 작품을 완성하게 된다.

이 소설은 작가 오가이가 자신의 청춘시절을 되돌아보며 쓴 소설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작가 오가이의 인생체험들이 이 작품 속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작품의 제목 『기러기』가 어떤 암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작품의 배경과 구성에 대해 각장마다 시간적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을 분석하여 작가의 삶의 경험이 ‘나’, ‘오카다’, ‘오타마’ 그리고 ‘스에조’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자인 ‘나’는 작가 오가이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나’는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는 소심한 오가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의 이야기를 ‘나(僕)’라는 화자를 통해 객관적이고 사실적이면서 방관자적인 작가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둘째, 오카다는 소설의 주인공이자 작가 오가이와 같은 동경대 의학부의 학생이며, 오가이의 청춘 시절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신이 처해진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억누르며 현실에 안주하고, 사랑보다는 자신의 성공을 중시하는 남자주인공 오카다를 통해 작가의 청춘시절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셋째, 이 작품의 제목 『기러기』는 오타마를 의미하며, 기러기의 죽음으로 오타마와 오카다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작가 오가이가 젊은 날에 겪었던 좌절과 체념을 여주인공 오타마의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좌절로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작가 오가이처럼 아름다운 여성을 첩으로 둔 스에조를 통해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것도 포기하지 않고 끝내 이루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기러기 작품 속 인물들에게서 작가 오가이의 인생이 역할을 분담하여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 목 차 >

### 국문초록

I. 서론	1
II. 본론	4
1. 『기러기』의 복선	4
2. 작품의 구조	9
3. 작품의 등장인물 분석	16
1) ‘나(僕)’	16
2) 오카다(岡田)	22
3) 오타마(お玉)	30
4) 스에조(末造)	39
III. 결론	47
참고문헌	50
ABSTRACT	53

## I. 서론

모리 오가이(森鷗外:1862년~1922년, 이하 오가이)는 일생동안 육군 군의관으로서 작가로서 다방면으로 활약한 일본문학의 거장이며 “일본 근대문학에 대한 영향과 발달에 지대한 공헌을 한 대문학자”<sup>1)</sup>이다. 그는 1862년 1월 19일 지금의 시마네 현 서부에 위치한 쓰와노번(津和野藩)이라는 마을에서 황실의 의료를 맡고 있는 전의의 장남으로 태어났고 그의 본명은 모리 린타로(森林太郎)로 ‘모리 집안’에서 그의 탄생에 큰 기대를 가졌다. 1907년 군의관의 최고자리인 육군성 의무국장을 마지막으로 1916년에 군에서 퇴역을 하게 되면서 제실박물관<sup>2)</sup> 총장 겸 도서관장, 제국 미술원 초대원장 등을 역임하다 1922년 폐결핵으로 인생을 마감했다.

오가이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훈육으로 한학을 익혔으며 아홉 살 때부터는 의원이었던 아버지로부터 의학 서적을 읽기 위해 엄격한 교육을 받았다. 그는 19세가 되던 1881년에 최연소 학생으로 동경대학 의학부를 졸업하였고 그 후 육군 군의로 채용되어 육군성 파견 유학생으로 독일 베를린에서 1884년에서 1888년까지 4년간 머무르게 된다. 이때 그는 의학 외에 미술과 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독일에서 겪은 경험들이 그가 소설가가 되는데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귀국 후 오가이는 육군 군의학교 교관이 되었고 이듬해인 1889년에 일본의 근대시에 큰 영향을 주는 번역시집 『모습(於母影)』을 발표하면서 스스로가 평론 전문지 『시가라미조시(しがらみ草紙)』를 창간하며 문학도의 길을 펼쳐나갔다.

오가이는 메이지·다이쇼 시대에 육군 군의총감으로 엘리트 군의관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독일에서 돌아와서 2년 뒤(1890년)에 유학 당시의 생활을 바탕으로 적은 단편 소설 『무희(舞姬)』, 『덧없는 이야기(うたかたの記)』(1890), 그 이듬해 『과발꾼(文づかひ)』(1891) 등의 연애소설 3부작을 발간하면서부터 일본 낭만주의의 문학의 선구자로서 이름을 날렸다.

작품 『기러기(雁)』는 1911년 9월에 1장으로 시작하여 1913년 5월 21장을 마치

1) 福田清人(1992) 『人と作品(11) 森鷗外』 清水書院 p.8.

2) 帝室博物館(現在の 東京国立博物館・奈良国立博物館・京都国立博物館 等)

막으로 잡지 『스바루(スバル)』의 폐간으로 미완성이었다가 그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22장에서 24장까지 완성하여 1915년 5월에 단행본으로 간행된다. 총 3년 8개월에 걸쳐 완성하게 된 작품으로 일본의 혼란스러운 현실사회를 예술적으로 이끌어 낸 창의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을 띄고 있으며 그의 문학 활동이 가장 왕성했던 메이지(明治) 말기에서 다이쇼(大正) 초기까지 쓰인 문학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기러기』는 오가이의 작품군에 있어서는 이색적인 작품으로 고답적인 사상성보다 자연주의의 반감과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장편소설인 『산시로(三四郎)』로부터 자극을 받아 쓴 오가이의 가장 소설다운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오가이가 자신의 청춘시절을 회상하며 가능한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과거를 재현하려 했다. 또한 오가이가 세계 속에서 급격히 변해가는 일본 개화기의 혼란을 겪으면서 그런 사회를 뛰어넘을 수 없는 사회적 구조를 오카다(岡田)와 오타마(お玉)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다.

오가이의 『기러기』에 대해 많은 평가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행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연구에서 기시다 요시코(岸田美子)는 『기러기』를 걸작이라 평하면서 “나(僕)’를 작가 오가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오카다 또한 작가 자신’”<sup>3)</sup>이라는 관점을 새롭게 제시했다. 또한 다케모리 텐유(竹盛天雄)는 “『기러기』는 ‘나(僕)’가 잠재적인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세계와 오타마의 세계로 이루어진다.”<sup>4)</sup>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작품 속 주인공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설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스다 기요지(須田喜代次)는 “『모리 오가이 『기러기』 시론』에서 시간에 엄격한 오카다를 등장시킴으로써 작품 속 이야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하고 있다.”<sup>5)</sup> 작품 『기러기』는 메이지 13년이라는 근대 초의 시대적 배경으로 사상적, 문학적 그리고 문단사적 배경이 잘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작품 『기러기』는 “오가이 자신의 청춘 시절의 추억을 토대로 하여 쓰인 작품

3) 岸田美子(1947) 『森鷗外小論』 至文堂 p.6.

4) 竹盛天雄(1968) 「(作品解説)雁」 『森鷗外必携』 学灯社 p.4.

5) 須田喜代次(1976) 「森鷗外『雁』試論」 国語通信 p.5.

이라고 할 수 있다.”<sup>6)</sup>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작가 오가이가 35년 전의 일을 회고하면서 시작되는 사실적이면서도 시대를 추정할 수 있는 구도로 작가가 메이지 시대에 품고 있던 자신의 사상을 작품 속 등장인물들로 하여금 적절히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우선 작품의 제목과 구조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인 ‘나(僕)’, 오카다(岡田), 오타마(お玉) 그리고 스에조(末造)의 인물들을 분석하여 작가의 인생이 각각의 인물들에게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작가 오가이는 작품 『기러기』에서 주인공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것은 기존의 연구방법이었던 작품의 주인공을 오카다로 보고 작품의 화자를 ‘나(僕)’로 보았던 것에서 벗어나 작품 전체를 작가 오가이의 인생체험이 개입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텍스트로는 森鷗外の 『森鷗外全集 (第三卷) 「雁」』 (筑摩書房:1971)을 사용했으며, 텍스트 인용의 한국어 번역은 장남호가 번역한 『시사일본명작시리즈④ 기러기』 (時事日本語社, 1977)를 참조하였다.

---

6) 鷗外研究会編(1997.10) 『森鷗外『スバル』の時代』 双文社出版 pp.99-100.

## II. 본론

### 1. 『기러기』의 복선

소설 주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선 작품의 제목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작품의 제목을 붙일 때는 그 작품의 주제를 암시하는 제목 『기러기』라는 의미의 안(雁)을 의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雁(기러기 안)은 일본어로 훈독은 <かり>, 음독은 <がん>이다. 따라서 소설 제목을 『雁』이라고 했다면 읽는 독자에 따라서 <かり> 또는 <がん>이라고도 읽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오가이는 독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고 『雁(がん)』이라고 음독으로 <がん>으로 읽어 표기한 것인가? 오가이의 자식들 이름을 보면 「於菟(オット)」、 「茉莉(マリ)」、 「杏奴(アンヌ)」、 「不律(フリッツ)」、 「類(ルイ)」 전부 음독으로 대응시키고 있다는 것에서 보면 오가이는 한자 읽기를 훈독보다 음독을 좋아했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기러기는 한국과 일본에는 주로 가을에 왔다가 봄에 사할린, 시베리아, 알래스카 등지로 돌아가는 겨울 철새이다. 일본 아오모리현(靑森縣) 소토가하마(外ヶ浜)에는 간부로(雁風呂)<sup>7)</sup>라는 풍습이 전승되고 있는데 그것은 기러기 공양과 관련이 있다.

일본에 가을에 날아오는 기러기는 나무 조각을 입에 물고 또는 발가락으로 집어 옮겨 온다고 믿고 있었다. 건너는 도중 해상에서 수면에 나무 조각을 띄워 그 위에 휴식하기 위해서 라고 한다. 일본 해안까지 오면 해상에서 휴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필요 없는 나무 조각은 거기에서 일단 떨어뜨린다. 그리고 봄이 되면 다시 떨어뜨려 둔 나무 조각을 물고 바다를 건너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행의 계절이 끝나고 이제 기러기가 오지 않아도 해안에 아직 남아있는 나무 조각이 있으면, 그것은 일본에서 죽은 기러기 것이라고 해서 공

7) 해변의 나무를 뿔감으로 목욕물을 데우는 것.

양을 위해, 여행자 등에게 물에 떠내려가는 나무를 주워 피워서 목욕을 했다고 한다.

日本に秋に飛來する雁は、木片を口にくわえ、または足でつかんで運んでくると信じられていた。渡りの途中、海上にて水面に木片を浮かべ、その上で休息するためであるという。日本の海岸まで來ると海上で休息する必要はなくなるため、不要となった木片はそこで一旦落とされる。そして春になると、再び落としておいた木片をくわえて海を渡って歸っていくのだと考えられていた。旅立ちの季節が終わりもう雁が來なくなっても海岸にまだ残っている木片があると、それは日本で死んだ雁のものであるとして、供養のために、旅人などに流木で焚いた風呂を振る舞ったという。<sup>8)</sup>

위와 같이 기러기가 가을에 입에 물어 온 나무를 봄에는 물고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남은 나무는 일본에서 죽은 기러기의 것으로 여기는 미신에서 기러기를 공양한 풍습이라고 전해진다는 것을 보면 슬픈 이야기이다. 이와 같은 풍습이 하이쿠(俳句)에 표현의 동기가 되어 봄(春) 계절어로 즐겨 사용되었다. 간부로(雁風呂)의 열킨 다카하마 료시(高浜虚子)의 다음과 같은 하이쿠가 있다.

바다가 거친 날은 기러기에게 나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변 나무를 땀감으로 목욕물을 데우지 않는 것이다.<sup>9)</sup>

이와 같은 일화를 미루어볼 때 소설 제목이 소설의 상징적인 표현 동기를 나타내고 있다면 오가이는 무언가 슬픈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나타내는 복선으로서 제목을 붙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설이 들어가는 1장에서는 기러기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설을 읽기 시작했지만 기러기라는 새는 나오지 않고 1장에 이 소설의 주인공 오카다(岡田)가 산보하는 코스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그리고 나서 마쓰젠이나 간나베가 있는 히로코지, 좁고 변화한 나카초를 지나,

それから松源や雁鍋のある廣小路、狭い賑やかな仲町を通過って、(p.4)

8) <https://ja.wikipedia.org/wiki/%E9%9B%81%E9%A2%A8%E5%91%82> (2016.10.17.검색)

9) 다카하마 료시(高浜虚子; 1874~1959) '雁風呂や海ある日はたかぬなり'

이처럼 「雁鍋(がんなべ)」<sup>10)</sup>라는 기러기 요리점이 보인 후 이 소설 중반을 지나서도 나오지 않는다. 기러기는 언제 나오는 것인가, 이 소설 중반 클라이맥스 부분 22장에서 6회, 23장에서 9회, 24장에서 2회가 나온다.

22장에서 맨 처음으로 등장하는 기러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거무스름하게 물들인 위로 희미한 반사를 보이고 있는 수면 위로 열 마리 가량의 기러기가 유유히 오가고 있다. 그 중에는 멈춰 서서 움직이지 않는 것도 있다.

黒ずんだ上に鈍い反射を見せている水の面を、十羽ばかりの雁が緩やかに往來している。中には停止して動かぬものもある。(p.63)

여기에서는 이 소설에서 아직 이 기러기가 무슨 암시를 나타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계속해서 나오는 기러기를 보아도 그러하다.

“저기까지 돌이 닿겠는가?”라고 이시하라가 오카다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닿기는 하겠지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의문이군.”라고, 오카다는 대답했다.

“해 보게”

오카다는 주저하였다. “저놈은 벌써 잡든 것 같은데. 돌을 던지는 것은 불쌍한 것 같다.” 이시하라는 웃었다. “그렇게 지나치게 불쌍하게 생각해서는 곤란하지. 자네가 안하면 내가 던지지.”

오카다는 내키지 않은 듯 돌을 집었다. “그렇다면 내가 쫓아주지” 돌멩이는 바람을 가르며 희미하게 여운을 남기고 날아갔다. 내가 그 날아가는 돌멩이 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기러기 한 마리가 쳐들고 있던 머리를 축 늘어뜨렸다. 그 사이에 두세 마리의 기러기는 울면서 날개를 치며 수면을 따라 미끄러지듯 흩어졌다. 그러나 날아가지는 않았다. 머리를 축 늘어뜨린 기러기는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맞았다.”라고 이시하라가 말했다. 그리고 잠시 연못 위를 바라보고 있다가 말을 이었다.

“저 기러기는 내가 잡아올 테니 자네들도 그때 좀 도와주게나.”

“어떻게 잡나”라고 오카다가 물었다. 나도 무심결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제 30분쯤 지나면 어두워질 거야. 어두워지기만 하면 내가 간단히 잡아 보이겠네. 자네들은 도와주지 않아도 되지만 그 자리에 있다가 그때 내 부

10) 기러기 고기는 상당한 고급 식재료로 육질과 맛이 소고기와 비슷해 요리로 많이 사용 했다고 한다.

탁을 들어주게. 기러기를 대접할 테니.”라고 이시하라가 말했다.

「あれまで石が届くか」と、石原が岡田の顔を見て云った。

「届くことは届くが、中るか中らぬかが疑問だ」と、岡田は答えた。

「遣って見給え」

岡田は躊躇した。「あれはもう寐るのだろう。石を投げ付けるのは可哀そうだ」

石原は笑った。「さう物の哀を知り過ぎては困るなあ。君が投げんと云うなら、僕が投げる」

岡田は不精らしく石を拾った。「そんなら僕が逃がして遣る」つぶてはひゅうと云う微かな響をさせて飛んだ。僕が其行方をじっと見ていると、一羽の雁が擡げていた頸をぐたりと垂れた。それと同時に二三羽の雁が鳴きつつ羽たたきをして、水面を滑って散った。しかし飛び起ちはしなかった。頸を垂れた雁は動かずに故の所にいる。

「中った」と、石原が云った。そして暫く池の面を見ていて、詞を継いだ。「あの雁は僕が取って来るから、その時は君達も少し手伝ってくれ給え」

「どうして取る」と、岡田が問うた。僕も覺えず耳を敬てた。

「先ず今は時が悪い。もう三十分立つと暗くなる。暗くさえなれば、僕がわけなく取って見せる。君達は手を出してくれなくても好いが、その時居合せて、僕の頼むことを聽いてくれ給え。雁は御馳走するから」と、石原は云った。(p.63)

여기서 기러기라는 것은 식재료에 불과한 것일 뿐이며 작자의 어떤 특별한 복선이 있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그 다음 23장으로 넘어가서 처음으로 나오는 기러기를 보면 아래와 같다.

나는 오카다와 함께 하나조노초 기슭을 가로질러 도쇼구의 돌계단 쪽으로 갔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대화가 끊어졌다. ‘불행한 기러기가 있군.’ 이라고 오카다가 혼잣말처럼 말한다.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영상에는 어떤 이론적 관계도 없이 무엔자카의 여자가 떠오른다. ‘나는 그냥 기러기가 있는 쪽으로 목표로 던진 것뿐이었는데.’ …<중략>… 돌계단 아래를 남쪽으로, 벤텐 쪽을 향해 걷는 두 사람의 마음에는 어쨌든 기러기의 죽음이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어 이야기가 자주 끊겼다.

僕は岡田と一しょに花園町の端を横切って、東照宮の石段の方へ往った。二人の間には暫く詞が絶えている。「不しあわせな雁もあるものだ」と、岡田が獨言の様に云う。僕の寫象には、何の論理的連繫もなく、無縁坂の女が浮ぶ. 「僕は只雁のいる所を狙って投げたのだがなあ」…<中略>… 石段の下を南へ、弁天の方へ向いて歩く二人の心には、とにかく雁の死が暗い影を印していて、話がきれぎれになり勝であった。(pp.63-64)

여기에서 겨우 이 소설의 제목 『기러기』가 이 소설의 여주인공 오타마와 관계

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오카다가 던진 돌에 맞아 목을 늘어뜨려 죽은 이 불행한 기러기가 오타마의 불행한 운명을 암시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7장에서 오카다가 홍작(紅雀)을 살린 것이 계기가 되어 오타마와 친하게 말을 나누게 된다. 오타마의 마음속에는 점점 오카다에게로 사모의 정이 쌓여간다. 이 소설의 클라이맥스 24장에서 남편 스에조가 지바(千葉)에 가고 없을 때 오타마는 마음먹고 오카다에게 고백을 하려고 기다리지만 그 날 오카다는 ‘나(僕)’와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건네지 못한다. 오카다는 독일에 가기 위해 다음날 하숙을 나오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타마는 오카다를 만날 기회를 영구히 가지지 못하게 된다. 그 산보 도중에 시노바즈노이케(不忍池)에서 던진 오카다의 돌에 맞아 한 마리의 기러기가 죽는다는 내용은 오타마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이 소설에서 맨 마지막 장인 24장에 나오는 기러기는 그저 이시하라와 함께 하는 맛있는 술안주거리로 사용되고 있다.

나와 오카다는 그날 밤 이시하라의 집에 밤늦게까지 있었다. 기러기를 안주 삼아 술을 마시는 이시하라의 상대역을 했다고 해도 될 것이다.

僕と岡田とは、その晩石原の所に夜の更けるまでいた。雁を肴に酒を飲む石原の相伴をしたと云っても好い。(p.68)

소설은 끝났다. 이것은 오가이가 다소 비약적이겠지만 여기서 기러기를 여주인공 오타마로 바꾸어 보면 오카다가 친구 이시하라와 송별회하는 안줏거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기러기라는 새는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시기가 지나면 떠나야 하는 철새이다. 따라서 이 소설의 제목 『기러기』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오카다의 돌에 맞아 한 마리의 기러기가 죽는다는 것처럼 오타마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한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남자 주인공 오카다가 여주인공 오타마와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작품의 구조

『기러기』 작품의 구조로는 작가 오가이가 35년 전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사실적으로 전개했다고 볼 수 있다. 작품 속에 보이는 장소 또한 작가가 다녔던 동경대학 부근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나가키 타츠로(稻垣達郎)도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기러기』는 작가 오가이나 독자들이 현실적으로 잘 살았고, 눈앞에서 바라볼 수 있는 토지-동경 대학 주변-을 무대로 누비고, 그곳에서 일찍이 일어나고, 그를 흔적하지 않고 완결된 한 작은 사건을 말하고 있다.”<sup>11)</sup>

이처럼 소설 『기러기』는 오가이 자신의 청춘시절을 회상하며 가능한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과거를 재현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작품을 보면 ‘나(僕)’는 아름다운 여인을 좋아하고 문학에 관심을 두며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못하는 작가 오가이를 빗대어 말해주고 있다. 이 작품 또한 작가 오가이가 직접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 속 ‘나’를 통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구성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오카다는 수려한 외모와 시간적 개념이 철저하고 모범적인 인물로써 오타마라는 ‘창가의 여인’에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가지만 두 번의 우연적인 사건으로 인해 그녀와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끝내는 사랑보다 자신의 장래를 더 중시하여 독일로 유학을 떠나게 되는 구성의 남자 주인공이다. 여자 주인공 오타마는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두 사람의 첩으로서 당하는 고난과 굴욕을 인내하며 스스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게 된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그 고통을 감내하며 자신의 자아를 깨닫게 되는 동시에 세상에 대한 방관자로 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기러기』는 메이지 13년에 일본근대의 새로운 시각의 일면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 일부일처제가 명문화된 메이지 16년(法律上, 一夫一妻制が明文化されるのは明治十六年)”<sup>12)</sup> 전의 일로서 스에조는

11) 稻垣達郎(1999) 『學藝小品 森鷗外』 明治書院 p.85.

12) 金井景子(1992) 「雁」-懐かしさのレトリック (森鷗外の世界<特集>)-(作品の世界) 『国文学解釈と鑑賞』 57(11) 至文堂 p.97.

오타마를 자신의 첩으로 두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고 단지 가족이 알면 귀찮아지는 것을 염두에 두어 오타마를 만나고 있다. 또한 고리대금업자로서의 부를 누리기까지의 어려움과 힘든 일들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전진해 나가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기러기』의 작품은 1장부터 24장까지 단락구성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시간적 흐름에 따라 작품세계와 등장인물들의 사상적 배경이 묘사되고 있다.

이 소설은 아래와 같은 문장으로 시작된다.

오래 전의 이야기다. 나는 어찌다가 그 일이 메이지 13년(1880)에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그 해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그 즈음 나는 동경대학 철문 앞 맞은편에 있던 하숙집 가미조에서 이 작품의 남자주인공과 벽을 사이에 두고 옆방에 사는 친구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가미조가 메이지 14년(1881)에 화재로 불타 버렸을 당시, 나도 살 곳을 잃은 한 사람이었다. 불이 나기 1년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나는 기억하고 있다.

古い話である。僕は偶然それが明治十三年の出来事だと云うことを記憶している。どうして年をはっきり覚えているかと云うと、基頃僕は東京大学の鐵門の眞向いにあつた、上條と云う下宿屋に、此話の主人公と壁一つ隔てた隣同士になつて住んでいたのである。その上條が明治十四年に自火で焼けた時、僕も焼け出された一人であつた。その火事のあつた前年の出来事だと云うことを、僕は覚えているからである。(p.3)

이와 같이 소설 속 남자 주인공 오카다의 친구인 ‘나(僕)’를 통해서 회고담(回顧談)의 형식으로 전개된다. 이 이야기는 『기러기』 작품 속에서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 화자인 ‘나(僕)’가 35년 전의 오카다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그 후에 오타마에게서 들은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작품의 구성을 보면 메이지 13년(1880)이라는 시간적 확정을 바탕으로 오타마와 오카다의 진정한 사랑이 시간적 한계인 메이지 13년을 넘어설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소설의 주인공 오카다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1장에서는 동경대학을 무대로 하고 있고, 이 소설의 주인공인 오카다의 문학취미와 모범적 생활습관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화자인 ‘나(僕)’와 이야기의 주인공인 오카다가 오랫동안 옆방에 살면서도 교제가 없었는데 중국의 『금병매』라는 소설을 계기로 서로 왕래하게 되었다. 2장에서는 이 이야기의 주제를 암시하는 이 소설

의 무대가 된 무엔자카(無緣坂)를 오카다가 매일 산책하면서 ‘창가의 여인’과 인사를 나누게 된다. 3장에서는 오카다의 여성관을 서술하고, 창가의 여인과 인사를 나누는 후에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지만 여인의 신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다.

4장부터 16장까지는 창가의 여인인 오타마의 사연을 더듬어 간다. 오타마의 출신, 지금은 하인 출신인 고리대금업자인 스에조와 오타마와의 관계, 스에조의 아내 오쓰네의 질투, 스에조가 오타마를 자신의 첩으로 두고 있는 일본의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메이지 13년의 고리대금업자라는 직업이 이 시대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에 대해 서술되어지고 있다.

창가의 여인의 정체는, 실은 오카다를 주인공으로 해야 하는 이 사건이 과거사가 되고 난 후에 들은 것이지만, 사정상 여기서 대충 이야기하기로 하겠다.

窓の女の種姓は、實は岡田を主人公にしなくてはならぬこの話の事件が過去に屬してから聞いたのであるが、都合上ここでざっと話すことにする。(p.8)

상기와 같이 4장의 서두에는 남자 주인공 오카다와 창가의 여인의 관계는 일단 중단이 되고 스에조와 오타마를 축으로 하는 과거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또한 ‘창가의 여인’ 오타마가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해 스에조의 첩이 되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의과대학이 아직 시타야(下谷)에 있을 때였다. 창이 열려 있는 도도(藤堂) 주택의 문나가야(門長屋)라는 공동주택의 기숙사에서 사환으로 있던 스에조가 고리대금업으로 성공하면서 사환을 그만두게 되고, 차츰 잔소리가 심한 아내가 불만스럽게 느껴지며 한 여자를 떠올리게 된다. 샤미센 소리로 스에조의 주의를 끈 건 열에닐곱 살의 어여쁜 오타마였다. 오타마는 엿장수 영감이 애지중지하는 딸이었다. 오타마의 아버지는 무섭고 험상궂은 순사를 마지못해 사위로 맞이하게 되지만 머지않아 그 순사에게 고향에 처자식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오타마의 비극과 체념은 시작된다.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된 스에조는 중매 할멈을 시켜 오타마가 그의 첩으로 들어올 것을 간청하였고 마침내 오타마와의 만남을 주선하게 된다. 5장에서는 돈밖에는 모르던 스에조가 오타마를 자신의 첩으로 맞아들일 생각만으로도 밤잠을 못 이루고 상대인

오타마가 아직 승낙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지낼 집을 구하러 다니는 스에조의 추진력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6장 또한 구두쇠처럼 아주 검소한 생활을 즐기고 돈을 버는 일 외에는 아무런 취미도 없던 스에조가 오타마와의 만남을 위해 객실이 딸린 고급 음식점 마쓰겐(松源)<sup>13)</sup>과 두 부녀의 옷까지 준비하는 그에게는 하나의 화려한 의식이었다. 드디어 7장에서 스에조가 그렇게 바라던 오타마를 대면하게 되고, 완강하게 버티며 거절하던 오타마는 아버지의 봉양을 위해 스에조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8장에서는 오타마가 스에조의 첩이 되어 무엔자카(無緣坂)로 이사하게 되는 7월 중순경의 일이다. 스에조는 매일 밤 무엔자카를 드나들며 오타마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하여 그녀의 비위를 맞추게 되고, 그녀 또한 몸과 마음이 편해지자 점차 지루함을 느끼게 되면서 저녁마다 스에조가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게 된다. 9장에서는 오타마가 고리대금업자 스에조의 첩이 되어 이사 온지 사흘째 되던 날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 시대의 고리대금업자는 사회에서 멸시당하는 직업으로서 동네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던 오타마가 “고리대금업자의 첩 따위에게는 팔 생선이 없다”<sup>14)</sup>라는 말을 듣게 되면서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게 되고 그녀가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심적 작용이 체념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0장에서는 고리대금업자 스에조와 오타마의 심리적 변화를 묘사하고 있다. 앞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오타마는 체념이라는 감정을 느꼈고 그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또한 한편으로는 지금 오타마가 있는 무엔자카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처음에 스에조가 오타마를 보기위해 찾아왔을 때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오타마는 갑자기 신명이 나서 긴 이야기를 한다. … <중략>… 스에조는 그 이야기의 내용을 듣기보다는 새장 속에 잡아 놓은 방울벌레 소리라도 듣는 듯이 사랑스럽게 재잘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는다. 그때 오타마는 불현 듯 자신이 수다를 떨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얼굴을 붉히고 갑자기 이야기를 멈추고 원래의 말수 적은 대화로 되돌아가 버린다.

13) 마쓰겐(松源)은 동경 도 다이토 구(東京都台東区)에 있는 철도역인 우에노 히로코지(上野広小路)에서는 메이지에서 다이쇼초기에 걸쳐서는 가장 유명한 음식점이었던 것으로 추정됨.

<http://www.tokyo-kurenaidan.com/ougai-gan1.htm> (2016.9.27.검색)

14) 森鷗外(1971) 『森鷗外全集 (第三卷) 『雁』』 筑摩書房 p.22.

暫く話しているうちに、お玉はふと調子づいて長い話をする。…<中略>… 末造はその話の内容を聴くよりは、籠に飼ってある鈴虫の鳴くのをでも聞くやうに、かわいらしい囁の聲を聞いて、覺えず微笑む。その時お玉はふいと自分のしゃべっているのに氣がついて、顔を赤くして、急に話をはしよって、元の詞數の少ない對話にもどってしまう。(p.23)

오타마는 전과 같지 않게 스에조 앞에서 신명나게 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스에조에 대한 감정이 예전과 다르게 믿음직스럽고 상냥하다고 생각하며 오타마는 스스로의 삶에 대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스에조 역시 그러하다. 아내에게는 항상 냉혈하고 통명스럽던 스에조는 오타마에게 만큼은 한없이 자상하기만 하다. 오타마가 아버지를 뵈러가고 싶다는 말에 “아직도 가보지 않았어.”라며 웃음 띤 얼굴로 흔쾌히 허락을 한다. 스에조의 목소리는 상냥하기까지 하다. 11장에서는 오타마가 그리던 아버지 집을 방문하게 된 것이 열흘 만이라고 말하고 있다. 무엇보다 오타마는 형편이 좋아져 아버지를 편하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서 좋아하고 있다. 또한 남편과 사이가 어떠냐고 물으시는 아버지를 안심시켜드리고 자신이 좀 더 강해지고 현실의 삶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12장에서는 스에조의 아내 오쓰네(お常)가 남편 스에조에게 여자가 있음을 우오킨(魚金)의 안주인에게 듣고 따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하지만 사회적인 지식이 없는 오쓰네는 남편의 변명에 아무런 의심도 없이 속아 넘어가게 된다.

아내는 조그만 눈을 반짝거리며 집중하여 듣고 있다가, 이번에는 아양 떠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건 자네가 말한 대로인지 모르지만 그런 여자 집에 그렇게 드나들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냐. 어차피 돈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자인걸.” 아내는 어느새 ‘당신’이라는 말도 잊고 있다.

おかみさんは小さい目をかがやかして、熱心に聞いていたが、このとき甘えたような調子でこういった。「それはおまえさんのいうとおりかもしれないけれど、そんな女のところへたびたびいくうちには、どうなるか知れたものじゃありゃしない。どうせお金で自由になるような女だもの。」おかみさんはいつか「あなた」を忘れてる。(p.32)

오쓰네는 남편이 신문 같은 데에 나오는 조그마한 어려운 단어만 사용해도 어리둥절해 할 만큼 지식이 없는 여인이다. 그런 아내를 스에조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능청스럽게 몇 마디의 말로 아내의 마음을 다 잡고 있다. 오쓰네는 사회지식보다는 그저 아이들을 잘 돌보고 남편만을 바라보는 평범한 가정의 여인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12장부터는 오쓰네와 스에조의 갈등과 불안이 시작되게 된다. 13장에서는 거의 한 달 동안 스에조의 궤변의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오쓰네는 하녀를 데리고 히로코지로 시장을 보러 갔던 그 곳에서 무엔자카의 여인인 오타마를 만나게 되면서 여자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미묘한 직감으로 그녀가 스에조의 여자임을 감지하게 된다. 그런 이유로는 최근에 달라진 스에조의 행동과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스에조는 사업상의 예이라며 자신만의 기모노나 소지품들이 점점 호화스러워졌었다. 또한 단 한 번도 집에 선물을 들고 오던 남편이 아니었는데 오타마가 시장에서 들고 있던 양산과 똑같은 것을 오쓰네에게 선물한 적이 있다. 오쓰네는 그 선물을 받고 기뻐했던 자신을 후회하며 남편에 대한 분노가 가슴 속 깊은 곳으로부터 치밀어 오르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14장에서는 오쓰네가 오타마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남편 스에조에 대한 원망과 불만으로 인해 생기는 가정불화를 말하고 있다. 그녀는 남편에게 첩이 있다는 것을 짐작하면서도 남편으로부터 사죄를 받기는커녕 스에조가 시치미를 떼면 오쓰네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것은 아래 내용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시대에 아내는 일상생활유지를 위한 일종의 직업으로 보았고, 첩에 대한 이의신청도 완전봉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메이지 13년이라는 시기는 메이지 민법 이전에 있어서 국가가 오쓰네 같은 아무런 뒷배도 없는 처들의 입장을 가장 경시하고 첩을 두는 것에 대한 이의신청을 완전히 봉쇄한 시기였던 것이다.

つまり明治一三年という時期は、明治民法以前にあって國家がお常のような何の後ろ盾も持たない妻たちの立場を最も輕視し、蓄妾についての異議申し立てを完全に封殺した時期だったのである。<sup>15)</sup>

15장에서는 스에조가 오쓰네의 심적 변화를 관찰하는 시간적 경과를 그리고 있다. 즉, 8장에서부터 15장까지 서술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메이지 13년 7월 중순부터 3개월에 걸친 시간적 기술인 것이다. 16장은 메이지 13년 9월의 시점으로

15) 金井景子(1992) 前掲書 p.97.

이어진다. 대학에 신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고향으로 돌아갔던 학생들이 하숙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장에서는 오타마가 스에조의 소유물이 된 자신을 비웃으며 자아를 깨닫게 되는 그녀의 내면세계를 그리고 있다. 또한 그녀가 창 너머로 인사를 했던 믿음직한 학생이 오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이 명시되어 있다.

17장부터 21장까지는 19장의 오카다의 뱀 퇴치 사건 이후 오카다를 향한 오타마의 연모와 스에조의 출장을 기회로 오카다에게 접근하기 위한 오타마의 행동을 이야기한다. 17장에서는 귀찮게 달라붙는 오쓰네를 피해 스에조는 오타마를 찾는 일이 잦아지고 오타마를 위해 사다 준 홍작(紅雀) 한 쌍에 대해 이야기한다. 17장 이후로는 더 이상 오쓰네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그녀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생활과 현실에 타협하고 안주하며 체념할 수밖에 없음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다. 18장에서는 오카다가 ‘나’를 만나 자신이 겪었던 낯의 사건을 언급하게 된다. 그는 ‘나’에게서 빌린 『금병매』를 읽다가 머리도 식힐 겸 산책을 나갔다가 우연히 어떤 미인을 위해 뱀을 퇴치해준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다. 19장에서는 오카다가 들려주는 이야기로, 오카다가 오타마의 새장을 침범하는 뱀을 퇴치해주는 삽화이다. 20장은 오카다에 대한 오타마의 연정이 ‘이튿날’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로 커져가지만 오카다에게 접근할 수 없는 그녀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그리고 있다. 11월까지도 두 사람은 그저 인사를 나눌 뿐 진전은 없다. 21장에서는 날씨가 점점 추워져 서리가 새하얗게 내려앉는 시기가 되었다. 스에조가 이틀 정도 지바에 가게 되자, 오타마는 하녀인 우메를 집으로 보내고 오카다와의 만남을 기대한다.

22장부터 24장까지는 오타마의 계획이 좌절됨을 이야기하고 있다. 22장에서는 서양의 동화 중 『못 하나』라는 이야기로 『기러기』의 종말을 암시하고 있으며, 하숙집 저녁반찬으로 나온 ‘고등어된장조림’ 때문에 오카다와의 사랑을 꿈꾸는 오타마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예견하게 한다. 23장에서는 오카다가 무심코 던진 돌에 맞아 죽는 기러기를 보며 한탄하고, 오카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 독일 유학을 떠나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4장에서는 『못 하나』의 우연처럼 ‘고등어된장조림’의 우연으로 엮은 홍조를 띠고 오카다를 기다리고 있던 오타마도, 무심코 던진 돌에 죽은 기러기도 그리고 독일로 떠나는 오카다의

이야기도 하지 못한 채 이 이야기는 35년이나 지난 과거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처럼 『기러기』작품 속 시간의 흐름을 보면 이야기 속에서 스에조와 오타마의 시간과 오카다와 오타마의 시간이 중복되는 부분은 겨우 메이지 13년 9월부터 연말까지 석 달이 채 안 되는 전개이다. 그 짧은 기간에 비해서 물리적 시간의 경과 이상으로 인간의 운명과 심리적 기복과 변전이 그려지고 있다.

### 3. 작품의 등장인물 분석

#### 1) ‘나(僕)’

작품 『기러기』에서 ‘나’의 역할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는 이야기를 서술하는 화자인 동시에 동경대 앞 하숙집 가미조(上條)에서 남자 주인공 오카다와 벽을 사이에 둔 옆방 친구이다. ‘나’는 오카다와 함께 지내면서 직접 들은 것과 본 것 그리고 훗날 오타마에게서 들은 사건들을 과거를 연상하며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때로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러기』에서의 “‘나’는 단순한 화자가 아니라 작중 세계를 침범하는 살아있는 행위자”<sup>16)</sup>이며, “작가 오카다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내면에 잠재시키고 있는 자아를 외면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구성한 인물”<sup>17)</sup>로 볼 수 있다. 또한 작품에 ‘나’가 자주 등장하여 주인공이 오카다인지 ‘나’인지 혼동을 주며, 다른 작품의 화자와는 다른 점을 보여준다.

오래 전 이야기다. 그때가 메이지 13년(1880)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나는 우연히 기억하고 있다. 내가 그 해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그 무렵 나는 동경대학(東京大學) 철문 맞은편 쪽에 있는 가미조라고 하는 하숙집에서 이 이야기 속 주인공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두

16) 竹盛天雄(1976) 『雁』 『文芸読本 森鷗外』 河出書房新社 p.69.

17) 朴允哲(1995) 『日本近代小説에 나타난 虛無主義 思想에 關한 研究』 聖心外國語專門大學 論文集 第14輯 p.117.

고 옆방에 살았기 때문이다.

古い話である。僕は偶然それが明治十三年の出来事だと云ふことを記憶してる。どうして年をはつきり覚えてゐるか云ふと、其頃僕は東京大學の鐵門の眞向ひにあつた、上條と云ふ下宿に、此話の主人公と壁一つ隔てた隣同士になつて住んでゐたからである。(p.3)

4장에서 화자 ‘나’는 오타마(お玉)를 소개하는 문장에서 작가와 자신이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독자들이 추측할 수 있도록 했다.

작가의 여인의 정체는 실은 오카다를 주인공으로 해야하는 이 사건이 과거사가 되고 난 후에 들은 것이지만, 사정상 여기서 대충 이야기하기로 하겠다.

窓の女の種姓は實は岡田を主人公としなくたはならぬ此話の事件が過去に屬してから聞いたのであるが、都合上ここでざつと話すことにする。(p.8)

또한 24장에서는 작가와 동일인물이 아님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 같지만 독자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여 더욱 더 작가와 동일인물이라는 추측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다만 나에게 오타마의 애인이 될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논의할 여지도 없으니, 독자는 쓸데없는 억측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只僕にお玉の情人になる要約の備わっていぬことは論を須たぬから、讀者は無用の臆測をせぬが好い。(p.68)

한편, 화자인 ‘나’에 대한 성격을 나타내는 문장에서는 자신이 사교적이지 못하고 같이 지내는 학생들에게도 먼저 다가서지 못하는 아주 내성적인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

나는 사교성이 별로 없는 성격이라 학교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이라도 용건이 없으면 말을 걸지 않았다. 같은 하숙집에 있는 학생들에게 모자를 벗고 인사한 적도 별로 없었다.

僕は人附合いの余り好くない性(たち)であつたから、學校の構内で好く逢う人にでも、用事がなくては話をしない。同じ下宿屋にいる學生なんぞには、帽を脱いで礼をするようなことも少かつた。(p.5)

이처럼 ‘나’의 성격이 내성적이긴 하지만 근대 지식인으로서의 전형적인 청년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존심이 강한 지식인의 ‘나’의 모습은 헌 책방에서 오카다가 사고 싶어 했던 『금병매(金瓶梅)』<sup>18)</sup>를 먼저 사고 나서, 그 계기로 오카다와 『금병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대목에서도 잘 엿볼 수 있다.

“자넨 참 지독한 사람이다, 내가 모처럼 찾아낸 『금병매』를 사버렸더군.”

“그래, 자네가 부른 가격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인이 말하더군. 자네가 갖고 싶다면 내가 양보하지.”

“아니 뭐, 바로 옆방이니까 자네가 읽은 후에 빌려 보면 되지.”

「君はひどい人だね。僕が切角見附けて置いた金瓶梅を買ってしまったじゃないか」

「そうそう君が値を附けて折り合わなかったと、本屋が云っていたよ。君欲しいのなら譲って上げよう」

「なに。隣だから君の讀んだ跡を貸して貰えば好いさ」 (p.5)

‘나’는 『금병매』가 꼭 필요했던 것은 아니다. 오카다가 사려고 했던 책이었기 때문에 샀을 뿐이었다. 게다가 ‘나’는 오카다에게 기꺼이 그 책을 양보하겠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지식으로의 청년다운 자존심을 내보이고 있다. 이처럼 오카다와 ‘나’가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고, 한편으로는 ‘나’와 오카다가 저녁 후에 산책을 나가서 헌 책방을 둘러보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의 취미에 대해 정확히 언급하는 부분은 없지만 책방에 들러 『금병매』를 발견하고 샀다고 하는 부분에서 그는 문학에 취미가 있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그 당시 간다 신사 앞의 언덕을 내려가면 길모퉁이에 평상을 내어놓고 고서적을 팔던 책방이 있었다. 그곳에서 어느 날 『금병매』를 발견하여 주인에게 값을 물으니 7엔이라 했다. 5엔으로 깎아 달라고 하자 ‘아까 오카다씨가 6엔이면 사겠다고 했지만 안 팔았습니다.’라고

18) 『金瓶梅』는 『水滸誌, 三國志演義, 西遊記』와 함께 중국의 4대 기서(奇書)중의 하나이며 문인의 손에 의해 창작된 장편 애정 소설이다. 작자는 난릉(蘭陵)의 소소생(笑笑生)이 지었다고 되어 있다. 작품은 악당 서문경(西門慶)의 패륜과 적악(積惡)으로 일관된 생애를 다루면서 당시 봉건 사회의 부패상과 몰락상을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예술적으로는 자연주의적 기법을 채용하여 이후 소설 문학사의 전개에 일정 정도 기여하였다. 특히 이 작품이 미덕으로 삼는 예술적인 방면에서의 성과는 뒤이어 나오는 『홍루몽(紅樓夢)』의 작가에 의해 직접적으로 계승되어 중국 애정 소설의 선구자 역을 하였다.

말한다. 마침 그때 돈이 여유가 있어서 그냥 부르는 값에 샀다.

その頃神田明神前の坂を降りた曲角に、鉤なりに縁台を出して、古本を曝している店があった。そこで或る時僕が唐本の金瓶梅を見附けて亭主に値を問うと、七円だと云った。五円に負けてくれと云うと、「先刻岡田さんが六円なら買うと仰やいましたが、おことわり申したのです」と云う。偶然僕は工面が良かったので言値で買った。(p.5)

문학에 관심이 있었던 건 오직 ‘나’만이 아니었다. 작가 오가이가 중국문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위타 섹스아리스(キタ・セクスアリス)』에 잘 나타나고 있다.

어느 날 선생님의 책상 밑에서 중국 책이 빠져나와 있는 것을 보니, 『금병매』였다. 나는 바킨의 『금병매』 밖에 읽은 적은 없지만 중국책 『금병매』는 다른 것과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或日先生の机の下から唐本が覗いてるを見ると、金瓶梅であつた。僕は馬琴の金瓶梅しか讀んだことはないが、唐本の金瓶梅が大いに違つているといふことを知つてゐた。19)

서양 동화책에 하나의 못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아마도 바킨의 못이 하나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타고 나갔던 농부의 아들이 여러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야기였다. 내가 꺼낸 이야기에서는 고등어된장조림이 마치 하나의 못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西洋の子供の讀む本に、釘一本と云う話がある。僕は好くは記憶していぬが、なんでも車の輪の釘が一本抜けていたために、それに乗って出た百姓の息子が種々の難儀に出會うと云う筋であった。僕のし掛けたこの話では、青魚の未醬煮が丁度釘一本と同じ効果をなすのである。(p.60)

위의 내용을 보면, ‘나’는 ‘고등어된장조림’과 같은 작고 하찮은 일도 인생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의 못』이라는 서양의 동화책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결국, ‘나’는 이야기의 내용을 결정짓는 절대자의 위치에 있고 이야기의 흐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23장 첫머리에서 ‘나’는 기러기의 죽음을 보면서 ‘오타마의 운명’을 예견하게 된다.

19) 森鷗外(1971) 「キタ・セクスアリス」 『森鷗外全集』(第1巻) 筑摩書房 p.233.

“불행한 기러기도 있군.” 이라고 오카다가 혼잣말처럼 말한다. 내 머리 속에 아무런 이론적 관계도 없이 무엔자카의 여인이 떠오른다. “나는 그냥 기러기가 있는 쪽을 목표로 던진 것뿐이었는데.” 이번에는 오카다가 나를 보고 말한다. “응.”이라고 나는 대답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 여자를 생각하고 있다.

「不しあわせな雁もあるものだ」と、岡田が獨言の様に云う。僕の寫象には、何の論理的連繫もなく、無縁坂の女が浮ぶ。「僕は只雁のいる所を狙って投げたのだがなあ」と、今度は僕に對して岡田が云う。「うん」と云いつつも、僕は矢張女の事を思っている。(p64)

위의 내용에서와 같이, 오카다가 무심코 던진 돌에 어처구니없게도 기러기가 맞아 죽는다. 이 우연한 사건을 ‘나’를 통해 오타마와 오카다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이 이야기의 결말로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작가의 의도가 보인다. 이와 같이 ‘나’는 해박한 지식과 논리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사건을 분석하는 이야기 밖에 존재하는 해설자이다. 그러나 ‘나’는 또한 작품 속에서 직접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도 드러나고 있다.

내 가슴속에는 여러 감정들이 싸우고 있었다. 이런 감정에는 나를 오카다의 자리에 놓고 싶다는 마음이 저변에 깔려 있었다. 그러나 나의 의식은 그것을 인정하기를 거리고 있다. 나는 마음속으로 “난 그런 비열한 놈이 아니야”라고 외치며 그것을 부정하려고 했다. …(중략)… 단지 오카다처럼 아름다운 여자에게 사랑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그렇다면 사랑받고 어떻게 할까. 나는 이 점에 관해서는 의지의 자유를 유보하고 싶다. 나는 오카다처럼 달아나지 않겠다. 나는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리고 그녀를 동생처럼 사랑하겠다. 그녀에게 힘이 되어 주겠다. 그녀를 진흙탕 속에서 구원하겠다. 내 상상은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데까지 흘러갔다.

僕の胸の中では種々の感情が戦っていた。この感情には自分を岡田の地位に置きたいと云うことが根拠をなしている。しかし僕の意識はそれを認識することを嫌っている。僕は心の内で、「なに、己がそんな卑劣な男なものか」と叫んで、それを打ち消そうとしている。…(中略)… 只岡田のように、あんな美しい女に慕われたら、さぞ愉快だろうと思うに過ぎない。そんなら慕われてどうするか、僕はそこに意志の自由を保留して置きたい。僕は岡田のように逃げはしない。僕は逢って話をする。自分の清潔な身は汚さぬが、逢って話だけはする。そして彼女を妹の如くに愛する。彼女の力になって遣る。彼女を淤泥の中から救拔する。僕の想像はこんな取留のない處に歸着してしまった。(pp.61-62)

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화자 ‘나’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지금껏 냉철하고 철저하게 가지고 있는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서술했던 자신을 버리고 허물없이 자신이 느끼는 그대로를 말하고 있다. “아름다운 오카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문장에서는 ‘나’가 오카다와 같은 위치에 있고 싶음을 나타내지만 또한 자신이 상황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관찰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만약 그 아름다운 여성이 ‘나’를 사랑하게 된다면 ‘나는 오카다처럼 도망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만나서 이야기만은 할 것이다.’는 ‘나’의 솔직한 고백으로 오타마의 대한 간절한 사랑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 ‘나’의 역할은 관찰자이면서 방관자적인 모습과 그러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작가 오가이가 50세 나이에 작품 『기러기』를 집필하면서 과거의 자신의 감정을 제3자인 ‘나’를 통해 지금껏 한 번도 표현할 수 없었던 오가이의 속마음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인물 조형을 통해 보이는 작품 속에서 ‘나(僕)’와 작가 오가이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문학을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학적 취미라 할 수 있다. 산책을 하며 헌 책방을 들러 보는 습관으로부터 문학에 관심을 두어 『금병매』와 같은 중국소설을 좋아하는 취미까지 같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아름다운 여성을 좋아하는 ‘나’의 여성관과 오가이의 여성관이 같다고 볼 수 있다. 오타마처럼 아름다운 여자에게 사랑받고 싶은 ‘나’의 솔직한 마음과 지금까지 작가가 오타마를 아름답고 순수하며 단정한 용모와 함께 부모의 행복을 바라는 동양적인 효심과 함께 순진한 심성을 가진 여성으로 그림으로써 ‘나’와 오가이와의 여성관은 같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오타마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작가 오가이가 사랑했던 첫사랑의 여인 ‘아카사다의 딸’을 회상하는 심정으로 『기러기』를 집필하는 작가 오가이와 닮았다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나’의 역할이 관찰자로서 방관자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작가 오가이 또한 그러하다. 오가이는 “개인은 사회질서에 지배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힘의 지배 속에서 냉철하게 관찰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 방관자 자세야말로 훌륭한 작품을 탄생시킬 수 있다.”<sup>20)</sup>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35년 전 과거를 회상하는 화자 ‘나’의 관조적

태도와 오가이의 입장이 같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공통된 점을 미루어 볼 때, ‘나(僕)’는 『기러기』라는 작품을 독자들에게 작가 오가이를 대신하여 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2) 오카다(岡田)

『기러기』 작품 속 주인공은 오카다이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보여져왔던 것처럼 주인공을 오카다로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는 듯하다. 앞서 본론 2-2 『기러기』 작품의 구조에서 살펴본 바, 오카다가 등장하는 장은 도입부인 1·2·3장과 18·19장에서의 뱀 퇴치 사건 그리고 22~24장까지의 종말부로 채 10장이 되지 않는 분량이기 때문이다.

오카다는 동경대학 의학부 학생으로서 매사에 균형 잡힌 생활을 하는 모범생이며 혈기왕성하고 품행이 단정한 청년이다. 저녁 식사가 끝나면 어김없이 산책을 하고, 산책 도중에 헌책방을 들여다보는 문학에 취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우수한 성적은 아니지만 중간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모범적이다. 오카다의 규칙적인 생활은 시계만큼 정확하다고 여길 정도로 가미조 하숙집에서 다른 하숙생들과 주인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

그래서 평소 그의 품행이 어떤지 말하자면, 나는 당시 오카다처럼 균형 잡힌 생활을 하는 학생은 보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매학기 학점을 더 잘 받으려고 노력하거나 장학금을 노리는 공부벌레가 아니었다. 공부할 때는 확실히 공부를 해서 성적이 늘 중상위권을 유지했고, 놀 때는 또 확실히 놀았다. 저녁 식사 후에는 꼭 산책을 나갔다가 열 시 전에는 반드시 돌아왔다. ...<중략>... 시계를 오편(號砲)에 맞추는 걸 깜빡 잊은 사람은 시각을 묻기 위해 오카다의 방을 찾았다. 하숙집 마루의 벽시계도 때때로 오카다의 회중시계에 맞춰지곤 했다. 오카다의 행동을 오랫동안 지켜보면 볼수록 사람들은 그가 믿음직한 남자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そこで性行はどうかと云うと、僕は当時岡田程均衡を保った書生生活をしている男は少かろうと思っていた。學期毎に試験の点数を争って、特待生を狙う勉強家ではない。遣りだけの事をちゃんと遣って、級の中位より下には下らずに進んで来た。遊ぶ時間は極めて遊ぶ。夕食後に必ず散歩に出て、十時前には間違なく歸る。...<中略>... 誰でも時計を号砲に合せることを

20) 吉野俊彦(1979) 『あきらめの哲學 森鷗外』(京都:PHP研究所) p.157.

忘れた時には岡田の部屋へ問いに行く。上條の帳場の時計も折々岡田の懐中時計に據って匡されるのである。周囲の人の心には、久しくこの男の行動を見ていればいる程、あれは信頼すべき男だと云う感じが強くなる。(pp.3-4)

이처럼 오카다의 품행을 보면 매사에 규칙적이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믿음직한 학생이었다. 하지만 그의 생활을 보면 주위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는 오직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전형적인 일본 근대의 엘리트 청년의 성격이라 말할 수 있다.

이 사나이는 오카다라는 학생이고 나보다 한 학년 밑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미 졸업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오카다가 어떤 남자인지를 설명하자면 먼저 금세 눈에 띄는 특징부터 들어야 할 것이다. 그는 빼어난 미남이었다. 얼굴이 희멀겁고 호리호리한 미남이 아니었다. 혈색 좋고 체격도 좋았다. 나는 그런 얼굴의 남자를 본 기억이 거의 없다. …<중략>… 하지만 그 당시에 조정 선수였던 오카다는 가와카미보다 체격이 훨씬 좋았다.

この男は岡田と云う學生で、僕より一學年若いのだから、とにかくもう卒業に手が届いていた。岡田がどんな男だと云うことを説明するには、その手近な、際立った性質から語り始めなくてはならない。それは美男だと云うことである。色の蒼い、ひよろひよろした美男ではない。血色が好くて、体格ががっしりしていた。僕はあんな顔の男を見たことが殆ど無い。…<中略>…尤も当時競漕の選手になっていた岡田は、体格では遙かに川上なんぞに優っていたのである。(p.3)

위에서 비취진 오카다의 용모는 빼어나게 잘 생긴 흥안의 미소년이고 체격도 가와카미보다 다부지고 혈기 왕성한 멋진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의 뛰어난 외모와 훌륭한 체격은 근대 일본의 엘리트 청년이 지니고 있는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오카다는 저녁 후에는 휴식 겸 매일 산책을 하고 10시 전에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묘사하고 있다. 오카다의 산책 역시 그의 또 하나의 계획된 하루의 일과였다. 오카다의 산책은 단순히 무작정 거리를 돌아다니는 산책이 아니고 계획에 따라 산책코스를 두 가지 정도로 정해 놓고 그 외의 코스는 거의 건지 않았다. 오카다는 무슨 일을 하든 절제되고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일매일 오카다의 산책은 거의 코스가 정해져 있었다. …<중략>… 이 외의 길은 거의 가지 않았다. 산책 도중에 오카다가 하는 일은 가끔 현 책방을 들여다보고 걷는 정도였다. 우에노 히로코지와 나카초 사이에 있던 현 책방은 지금도 두세 곳 정도 남아 있다. 오나리 미치에도 당시의 가게가 그대로 있다. 야나기하라에 있던 가게는 모두 다 없어졌다. 혼고 거리에 있던 것은 거의 다 위치도 주인도 바뀌었다. 오카다가 아카몬에서 나와 좀처럼 오른 쪽으로 꺾어서 가지 않았던 것은 모리카와초는 길이 좁아 답답하기도 했지만, 당시 현 책방이 서쪽으로 한 군데밖에 없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

岡田の日々の散歩は大抵道筋が極まっていた。…<中略>… これより外の道筋はめったに歩かない。この散歩の途中で、岡田が何をするかと云うと、ちょいちょい古本屋の店を覗いて歩く位のものであった。上野廣小路と仲町との古本屋は、その頃のが今も二三軒残っている。お成道にも当時そのままの店がある。柳原のは全く廢絶してしまった。本郷通のは殆ど皆場所も持主も代っている。岡田が赤門から出て右へ曲ることのめったにないのは、一体森川町は町幅も狭く、窮屈な處であったからでもあるが、当時古本屋が西側に一軒しかなかったのも一つの理由であった。(p.4)

또한, 오카다는 산책을 하는 시간도 소중히 여겨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 그는 산책길에 가지런히 늘어서 있는 집들의 모습을 살피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엿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취미인 문학에 관련된 책을 보기위해 현 책방을 둘러보며 그의 문학적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문학적 취미는 서양소설을 번역한 잡지를 읽거나 한학자들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문으로 옮겨놓은 것을 읽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오카다가 현 책방을 들여다본 것은 요즘 말로 하자면 문학적 취미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략>… 오카다의 문학적 취미도 한학자가 시문으로 쓴 새로운 세상사를 재미있게 읽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岡田が古本屋を覗くのは、今の詞で云えば、文學趣味があるからであった。…<中略>… 岡田の文學趣味も漢學者が新しい世間の出來事を詩文に書いたのを、面白がって讀む位に過ぎなかったのである。(pp.4-5)

문학의 취미가 있던 오카다는 『구쇼신시(虞初新誌)』를 애독했으며 그중 「다이 텃쓰이덴(大鐵椎伝)」<sup>21)</sup>은 전문을 암송할 정도였다고 한다. 오카다는 『구쇼신시

21) 청대 위희(魏禧:1624~1681)가 쓴 인물 전기문(傳記文)이다. 내용은 출중한 무예를 가졌음에도 세상을 위해 재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협객 '큰 쇠망치'의 기이한 행적을 기록한 것이다.

(虞初新誌)』안의 「쇼세이텐(小青伝)」을 좋아한 글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쇼세이텐(小青伝)」에 등장하는 여인이 오카다가 평소에 마음에 품고 있던 여인상과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묘사하고 있다.”<sup>22)</sup> 다음은 오카다의 여성관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같은 『구쇼신시』 안에는 오카다가 좋아했던 글이 또 하나 있었다. 그것은 「쇼세이텐(小青伝)」이었다. 요즘말로 표현하자면 저승사자를 문 밖에 기다리게 하고 차분히 화장한다는 말과 같이, 죽음 앞에서도 아름다움을 생명처럼 생각하는 그 여자가 웬지 모르게 오카다에게 감동을 준 것이다. 여자는 어디까지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이므로 어떤 경우라도 평온하게 그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지켜야 한다고 오카다는 생각했다.

同じ虞初新誌の中に、今一つ岡田の好きな文章がある。それは小青伝であった。その伝に書いてある女、新しい詞で形容すれば、死の天使を閻の外に待たせて置いて、徐かに脂粉の粧を擬すとでも云うような、美しさを性命にしているあの女が、どんなにか岡田の同情を動かしたのであろう。女と云うものは岡田のためには、只美しい物、愛すべき物であって、どんな境遇にも安んじて、その美しさ、愛らしさを護持していなくてはならぬように感ぜられた。(p.7)

이처럼 오카다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청년이었다. 그의 여성관은 아주 정열적이고 치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가 여성에 대한 행위 또한 당연히 적극적이고 열정적 이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오카다는 ‘창가의 여인’ 오타마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그녀와 무언의 인사를 나눈 후에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상대의 신분이나 이름을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소극적이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오카다는 창가의 여자에게 가볍게 인사를 나눈 뒤로도 오랫동안 그녀의 신상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 물론 집의 모양이나 여인의 차림새로 보아 그녀가 첩일 것이라는 감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별로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름도 몰랐지만 구태여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문패를 보면 이름을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도 했지만, 창가에 그녀가 있을 때는 그녀에게 신경이 쓰였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웃 사람들이나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눈이 꺼려졌다. 결국 처마의 그늘에 가려진 작은 문패에 어떤 글자가 쓰여 있는지 보지 않았던 것이다.

岡田は窓の女に會釋をするようになってから余程久しくなっても、その女の身の上を探っ

22) 安仁愛(1990) 「森鷗外研究-作品에 나타난 女性像을 中心으로」 建國大學校 大學院 pp.20-21.

見ようとしなかった。無論家の様子や、女の身なりで、困物だろうとは察した。しかし別段それを不快にも思わない。名も知らぬが、強いて知ろうともしない。標札を見たら、名が分かるだろうと思ったこともあるが、窓に女のいる時は女に遠慮をする。そうでない時は近處の人や、往來の人の人目を憚る。とうとう庇の蔭になっている小さい木札に、どんな字が書いてあるか見ずにいたのである。(pp.7-8)

절제되고 모범적인 오카다는 오타마에게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찰나의 순간에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처음 오타마를 만났을 때 이 목구비를 자세히 살펴보았던 오카다이지만 그녀의 신상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매사의 적극적이었던 오카다가 오타마에게 만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그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다. 오카다가 오타마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태도는 다시 한 번 오카다와 오타마가 가까워지고 난 후 인사를 나누는 대목에서도 엿볼 수 있다.

지날 때마다 얼굴을 마주치는 동안 이런 생각을 하며 오카다는 점차 ‘창가의 여인’과 가까워지고, 그 후 2주정도 지났을 때였던가. 어느 저녁 그 창문 앞을 지날 때, 오카다는 무의식중에 모자를 벗고 머리를 숙였다. 그때 여자의 하얀 얼굴이 갑자기 붉게 물들며, 쓸쓸하던 얼굴이 화사하게 웃는 얼굴로 변했다.

通る度に顔を見合せて、その間々にはこんな事を思っているうちに、岡田は次第に「窓の女」に親しくなって、二週間も立った頃であったか、或る夕方例の窓の前を通る時、無意識に帽を脱いで礼をした。その時微白い女の顔がさっと赤く染まって、寂しい微笑の顔が華やかな笑顔になった。(p.7)

오카다가 처음 모자를 벗어 인사를 했을 때, 오타마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스스로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여자의 직감은 예리하다. 오타마는 오카다의 모자를 벗는 발작적 행위에서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

岡田が始めて帽子を取って會釋した時、お玉は胸を躍らせて、自分で自分の顔の赤くなるのを感じた。女は直覺が鋭い。お玉には岡田の帽子を取ったのが發作的行爲で、故意にしたのでないことが明白に知れていた。(p.42)

위에서 보이는 것처럼 오카다가 한 인사는 무의식중에 나온 반사적인 행동이었다. 매일 산책길에서 만나는 오타마를 그냥 지나치기에는 지식인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례적인 행동으로 인사를 했던 것이다. 오타마에 대한 오카다의 소극적인 태도는 오타마와 오카다가 우연한 사건으로 말을 주고받는 대목에서도 잘 묘사되고 있다. 하루 만나질 읽던 중국소설에 머리가 찌근거렸던 오카다는 정처 없이 하숙집 가미조를 나와서 습관적으로 무엔자카를 향하여 걷고 있었다. 오타마의 집 앞에 많은 여자들이 모여 있어 다가가자 창 위에 매달아 놓았던 새장에 뱀이 침입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그것을 퇴치해 주며 오타마와의 첫 대화를 주고받게 된다.

이때 집주인인 것 같은 약간 나이가 든 여자가 당황스러워 하면서도 조심스런 모습으로 오카다에게 말했다. 뱀을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옆집에 일을 배우러 와 계시던 분들 여럿이 곧 와 주셨지만 여자 손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라고 여자는 말했다. … <중략>… “아무거나 날붙이 같은 것 없습니까?” 라고 오카다가 말했다. … <중략>… “저 새장을 내려 뱀 대가리를 치우지 않으면…” 하고 오카다는 여주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 <중략>… “저, 그럼 저도 이만 슬슬 가보겠습니다.” 라며 오카다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 <중략>… “어머, 손이 더러워졌네요.” 주인여자는 하녀를 불러 현관에 세숫대야를 가지고 오게 했다. … <중략>… 여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다. “상투 끈 괜찮겠어요?” 라고, 오카다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다. … <중략>… “일단 내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군요.” 하며 오카다는 문을 나섰다. 주인 여자가 뒤따라 나오며 “대단히 고맙습니다.” 라며 사뭇 대답이 궁한 듯 말했다. … <중략>… 그러는 사이에 오카다는 “그럼 안녕” 이라는 인사를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언덕을 내려갔다.

この時家の主人らしい稍年上の女が、慌ただしげに、しかも遠慮らしく岡田に物を言った。蛇をどうかしてくれるわけには行くまいかと云うのである。「お隣へお爲事のお稽古に来ていらっしゃる皆さんが、すぐに大勢でいらっしゃって下すったのですが、どうも女の手ではどうする事も出来ませんでございます」と女は言い足した。… <中略>… 「何か刃物はありませんか」と岡田は云った。… <中略>… 「あの籠を卸して蛇の首を取らなくては」と云って、岡田は女主人の顔を見た。… <中略>… 「さあ僕もそろそろお暇(いとま)をしましょう」と云って、岡田があたりを見廻した。… <中略>… 「あら、あなたお手がよごれていますわ」と云って、女中を呼んで上り口へ手水盥を持って來させた。… <中略>… 女はちょっと考えて、「あの元結ではいかがでございます」と云った。「結構です」と岡田が云った。… <中略>… 「先ず僕の爲事はこの位でおしまいでしょね」と云って、岡田は戸口を出た。女主人は「どうもまことに」と、さも詞に窮したように云って、跡から附いて出た。… <中略>… その際に岡田は「さようなら」と云って、跡を見ずに坂を降りた。(pp.48-51)

오카다는 새장 속의 새를 구렁이로부터 구해준다. 일이 끝난 후 오타마는 어떻게 해서든 오카다에게 다가가려고 고민하던 끝에 새를 구하다가 오카다의 손에 묻은 피를 보고 하녀에게 물을 떠 오라 하며 오카다에게 접근하려 한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카다는 그녀의 마음을 모른 채 손만 씻을 뿐이었다. 또한 오타마가 사환을 시켜 뱀을 치우고 있는 동안에 오카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리고 만다. 이 장면에서 다시 한 번 오카다의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뱀 퇴치 사건이 있는 후에 또 한 번의 오타마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 생긴다. 그것은 스에조의 약 이틀간 지바 출장이었다. 이로 인해 오타마는 오카다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절정으로 다다르게 된다.

오타마의 눈은 닳을 잃은 듯 오카다의 얼굴을 좇고 있었다. 오카다는 당황하며 모자를 벗어 인사하고,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나는 흔히 제삼자에게 있기 쉬운 당당함으로 간간히 뒤를 돌아다보았는데, 오타마는 오랫동안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다. 오카다는 약간 고개를 숙이고 켜 걸음을 늦추지 않고 비탈길을 내려갔다.

お玉の目はうっとりとしたように、岡田の顔に注がれていた。岡田は慌てたように帽を取って礼をして、無意識に足の運を早めた。僕は第三者に有勝な無遠慮を以て、度々背後を振り向いて見たが、お玉の注視は頗る長く継続せられていた。岡田は俯向き加減になって、早めた足の運を緩めずに坂を降りる。(p.61)

앞에서 보아온 것처럼 오카다는 적극적이고 계획적이며 혈기왕성한 지식인이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오카다가 오타마를 보았을 때 당황 한 것은 그도 역시 오타마에 대한 보통 이상의 의미를 지닌 존재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타마의 따가운 눈길을 의식하지만 외면하듯이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카다는 주저하며 말했다. “저건 잠든 걸 거야, 돌을 던지기에는 불쌍한 걸” 이시하라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 “그렇게 가없어 하는 게 많아서야 곤란하지. 자네가 못 던지겠다면 내가 던지지.” 오카다는 마지못해 돌을 주웠다. “그렇다면 내가 쫓아주지.” 돌맹이는 바람을 가르며 희미하게 여운을 남기고 날아갔다. 내가 그 날아가는 돌맹이 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기러기 한 마리가 쳐들고 있던 머리를 축 늘어뜨렸다. 그와 함께 두세 마리의 기러기가 울면서 날개 짓을 치며 수면을 따라 미끄러지듯이 흩어졌다. 그러나 날아가지 않았다. 고개

를 숙인 기러기는 움직이지도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

岡田は躊躇した。「あれはもう寐るのだろう。石を投げ附けるのは可哀そうだ」石原は笑った。「そう物の哀を知り過ぎては困るなあ。君が投げんと云うなら、僕が投げる」岡田は不精らしく石を拾った。「そんなら僕が逃がして遣る」つぶてはひゅうと云う微かな響をさせて飛んだ。僕がその行方をじっと見ていると、一羽の雁が擡げていた頸をぐたりと垂れた。それと同時に二三羽の雁が鳴きつつ羽たたきをして、水面を滑って散った。しかし飛び起ちはしなかった。頸を垂れた雁は動かずに故の所にいる。(p.63)

기러기를 쫓으려고 무심코 던진 돌에 기러기 한 마리가 죽었다. 이 작품의 제목인 『기러기』는 이야기 속에서 여주인공 오타마를 상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작가 오가이가 『기러기』를 통해 이 이야기 속 오카다와 오타마의 결말을 미리 정해 두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지극히 소극적인 오카다는 오타마를 제 3자인 것처럼 그저 흘리는 말투로 한마디 내던지고 만다.

“불행한 기러기도 있군.”이라고 오카다가 혼잣말처럼 말한다. 나의 머릿속에 비친 영상에는 어떤 이론적 관계도 없이 무엔자카의 여자가 떠오른다. “나는 그냥 기러기가 있는 쪽을 목표로 던진 것뿐이었는데”라고 이번에는 나를 향해 오카다가 말했다. “응.”이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여자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不しあわせな雁もあるものだ」と、岡田が獨言の様に云う。僕の寫象には、何の論理的連繫もなく、無縁坂の女が浮ぶ。「僕は只雁のいる所を狙って投げたのだがなあ」と、今度は僕に對して岡田が云う。「うん」と云いつつも、僕は矢張女の事を思っている。(p.64)

위에서처럼 오카다는 기러기를 불행하다고 본다. 실제로 오카다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을 한 오타마 또한 불행한 여인이다. 마지못해 던진 돌에 맞아 죽은 기러기와 ‘나’와 동행으로 인해 오카다와 오타마의 마지막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끝내 말 한마디 못하고 오카다는 독일 유학을 위해 떠나가게 된다. 여러 가지 우연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메이지 13년, 그 당시의 봉건주의 사회에서 대학생과 고리대금업자의 첩과의 사랑이 맺어질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었을 것이다.

『기러기』에서 오카다는 스스로의 감정과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앞에서 묘사된 그의 적극적인 모습과 혈기왕성한 행동들은 오타마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무심코 던진 돌에 죽은 기러기처럼 오타마의 자아각성의 의미마저도 꺾어 버리는 결과를 나타냈다. 사랑보다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독일로 유학을 가는 오카다의 모습에서 오가이의 젊은 날의 인생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많다. 작가 오가이는 자신의 삶과 오카다를 동일시하여 보고 있다. 첫째로는 헌책방을 들러 책을 사서 읽는 문학적 취미를 가진 오카다가 “책방이나 친구에게서 책을 빌려보거나 헌 책방을 둘러보며 한시문(漢詩文)을 작성하기도 했던 오가이의 문학적 취미와 같다.”<sup>23)</sup> 두 번째로는 오카다의 진취적이고 열정적이지만 자신의 이상형 오타마에게만은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모습이다. 작가 오가이 또한 “자신이 사랑했던 ‘아키사다(秋貞)의 딸’에게 소극적이었던 오가이의 모습”<sup>24)</sup>이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오카다의 여성관과 “단정하며 예쁜 여성을 좋아하는 오가이의 여성관”<sup>25)</sup>이 닮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오카다의 문학적 취미, 오타마에게 소극적으로 대하는 성격 그리고 여성관, 무엇보다 더 나아가 자신의 장래를 위해 독일 유학을 선택하는 모습들이 오가이와 동일 인물이라 하여도 무리가 없을 정도이다. 마지막으로 오카다를 계획적이며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모범생으로 묘사하고 있는 모습은 작가 오가이가 동경(東京)대 의학부를 졸업하고 독일 유학과 군의(軍醫)로서는 최고의 지위인 육군군의총감(陸軍軍醫總監)으로 지냈던 인생체험과 닮은꼴임을 말할 수 있다.

### 3) 오타마(お玉)

오타마는 이 작품에서 여주인공으로써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3장에서 ‘창가의 여인’으로 묘사했던 오타마의 신상을 4장에서 6장에 걸쳐 소개하고 있다. 할아버지를 모시고 단 둘이 살아가는 가난한 삶이지만 항상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고 깨끗한 외모와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로 덕과 교양을 겸비한 일본의 전통적 정서에 맞는 여인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본의 봉

23) 福田清人(1992) 前掲書 p.39.

24) 曹紗玉(1985) 「森鷗外『雁』論」培花論叢 第4輯 培花女子大學校 p.138.

25) 赤羽貞雄(1980) 「鷗外と女性像」ほたる書房 p.30.

건사회 속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견어내지 못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내와 체념의 정서로 현실에 순응하는 여인이다.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한 그녀의 효심은 자신의 행복에 대한 체념을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모티브로 작용하게 된다. 하지만 체념의 연속이었던 그녀의 삶속에 모처럼 형성된 자아는 동경대학 의학부 학생인 오카다라는 청년과 그와의 사랑을 통해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지만 끝내 좌절을 겪게 되는 가련한 운명의 여인이다. 이러한 오타마의 체념과 자아각성의 과정 그리고 절망의 순간들을 작품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면 작가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오타마의 이야기는 그녀의 외모와 성품에서 일본 전통적 여성임을 알 수 있는 대목에서 볼 수 있다.

그 후 샤미센 소리의 주인공이 열 예닐곱의 귀여운 처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누추해 보이는 집에 어울리지 않게 이 처녀는 늘 단정한 차림에 산뜻한 기모노를 입고 있었다. 대문가에 서 있다가도 사람이 지나가면 곧 어두침침한 집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その三味線の音の主が、十六七の可哀らしい娘だと云うことを知った。貧しそうな家には似ず、この娘がいつも身綺麗にしている、着物も小ざっぱりとした物を着ていた。戸口にいても、人が通るとすぐ薄暗い家の中へ引っ込んでしまう。(p.9)

누추한 살림이지만 언제나 단정하고 산뜻한 차림새를 지녔으며 문밖에 서있다가도 누구라도 지나가면 곧장 집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아주 수줍음이 많은 일본의 전통적 여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오타마에게 처자가 있는 사람이었던 순사의 첩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오타마를 더 큰 고통에 빠트리긴 하지만 그 상황을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그녀의 운명임을 인정하고 체념하는 삶을 택하게 된다. 이것이 오타마가 처해있는 현실에 순응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순사와 헤어진 뒤 다시 남의 첩이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오타마는 스에조의 청혼을 거절하지만 끝내는 홀로 계신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스에조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다.

오타마의 쪽에서는 어차피 아버지의 고생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의 몸을 파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다고 힘든 결심을 했는데, 거무스름한 얼굴에 애

교가 있어 보이는 날카로운 눈을 가진 스에조가 품위 있고 고상한 옷차림을 하고 나온 것을 보고 마치 버렸던 목숨을 다시 건진 듯, 한순간 만족을 느꼈다.

お玉の方では、どうせ親の貧苦を救うために自分を賣るのだから、買手はどんな人でも構わぬと、捨身の決心で來たのに、色の淺黒い、鋭い目に愛敬のある末造が、上品な、目立たぬ好みの支度をしているのを見て、捨てた命を拾ったように思って、これも刹那の満足を感じた。(p.16)

위의 내용에서 “어차피”와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다”라는 그녀의 마음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전통적 가치관, 즉 어떤 일이라도 인내하며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체념의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아버지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그녀의 강한 효심이 결혼의 중요한 의미를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오타마는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행복에 대한 체념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버지와 빈곤에 대한 자각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의지를 갖게 하는 강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순사의 권력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첩이 되었던 것과 스에조의 결혼은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오타마는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 드리겠다는 마음 외에는 어떠한 목적도 없었기 때문에, 완고한 아버지를 설득하다시피 하여 첩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타락할 만큼 타락한 것이 아니라 여기고, 그 이타적 행위 안에서 일종의 안정을 얻었다.

お玉は父親を幸福にしようと云う目的以外に、何の目的も有していなかったもので、無理に堅い父親を口説き落すようにして人の妾になった。そしてそれを墮落せられるだけ墮落するのだと見て、その利他的行爲の中に一種の安心を求めていた。(p.41)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은 나머지 첩의 신분을 택한 그녀의 효심은, 즉 자신을 희생하는 오타마의 행위는 타인을 우선시 하는 ‘체념’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또한 작가 오가이가 스스로를 희생하고 ‘모리 집안’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꿈을 접었던 젊은 날의 체념을 그려내고자 함이라 말할 수 있다.

스에조는 단 하루밤도 머물지 않았다. 그러나 매일 밤마다 찾아왔다. 중매쟁이 할멈의 주선으로 열세 살의 소녀인 우메(梅)를 하녀로 두고 소꿉놀이 같은 부엌살림을 시킬 뿐이었기

때문에 오타마는 점점 말할 상대가 없다는 것에 지루함을 느끼고, 저녁때가 되면 어서 서방님이 오면 좋겠다고 기다리는 마음을 깨닫고 자신도 우습다고 생각했다.

末造は一夜も泊って行かない。しかし毎晩のように来る。例の婆あさんが世話をして、梅と云う、十三になる小女を一人置いて、台所で子供の飯事のような真似をさせているだけなので、お玉は次第に話相手のない退屈を感じて、夕方になれば、早く檀那が来てくれれば好いと待つ心になって、それに氣が附いて、自分で自分を笑うのである。(p.18)

제8장에서는 오타마가 무엔자카의 새 집으로 이사 오고 난 후의 일이다. 위의 내용을 보면 오타마가 첩의 삶으로 살면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지만 점차적으로 지루함을 느끼게 됨을 나타낸다. 또한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오는 스에조를 위해 이사 온 지 여러 날이 지났지만 아버지를 찾아가 보지 못한다. 그리고 언덕 밑 목욕탕에 갈 때에도 사람들의 동정을 살피고 나서야 다녀올 정도였다. 오타마는 스에조와 결혼한 후에도 순정적이고 타율적인 삶을 살아간다. 여기서는 오타마의 쓸쓸해 보이는 얼굴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적 풍요로움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내면의 쓸쓸함과 공허함이 이러한 모습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첩으로서 무료한 생활을 지내던 오타마에게 내면의 고민이 또 한 번 찾아오게 된다.

주인아줌마가 “넌 못 보던 아인데 어디에서 사러 왔니?”라고 묻길래, 이러저러한 집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했다. 주인아줌마는 갑자기 몹시 불쾌한 듯한 얼굴로 “아 그래, 너한테 미안하지만 그냥 가라, 가서 그렇게 전해, 우리 가게에는 고리대금업자의 첩 따위에게는 팔생선이 없다고.”라고 말하곤 고개를 획 돌린 채 담배를 머금고 전혀 상대를 해주지 않았다.

上さんが、「お前さんは見附けない女中さんだが、どこから買いにお出だ」と云ったので、これこれの内から來たと話した。上さんは急にひどく不機嫌な顔をして、「おやそう、お前さんお氣の毒だが歸ってね、そうお云い、ここの内には高利貸の妾なんぞに賣る肴はないのだから」と云って、それきり横を向いて、烟草を呑んで構い附けない。(pp.21-22)

아내를 잃은 사업가라고 말했던 스에조에게 처자가 있다는 것과 그의 직업이 고리대금업자라는 것은 안 순간이었다. 오타마는 하녀 우메가 생선가게에서 겪은 충격을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충격으로 인해 자신이 처해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된다.

우메는 너무나 분해서 다른 생선가게로 갈 마음도 없어져서 그냥 집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오타마에게 안타까운 듯 생선가게 여자의 말을 험뻑이며 반복했다. 오타마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이에 안색이 입술까지 새파랗게 질려 버렸다. 그리고 잠시 말을 잊었다.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처녀의 가슴에 복잡하게 뒤얽힌 여러 감정들이 뒤죽박죽되어서, 자기 자신도 그 엉킨 감정들을 풀어 볼 도리도 없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는 감정 전체가 강한 압력에 팔려온 순수한 처녀의 마음 위에 더해져, 온몸의 피가 심장으로 흘러보내져, 안색은 하얗게 변하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났다.

梅は余り悔やしいので、外の肴屋へ行く氣もなくなって、駈けて歸った。そして主人の前で、氣の毒そうに、肴屋の上さんの口上を、きれぎれに繰り返したのである。お玉は聞いているうちに、顔の色が唇まで蒼くなった。そして良久しく黙っていた。世馴れぬ娘の胸の中で、込み入った種々の感情がchaos(カオス)をなして、自分でもその織り交ぜられた糸をほぐして見ることは出来ぬが、その感情の入り亂れたままの全体が、強い壓を賣られた無垢の處女の心の上に加えて、体じゅうの血を心の臓に流れ込ませ、顔は色を失い、背中には冷たい汗が出たのである。(p.22)

오타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지고 등에서 흐르는 식은땀은 분명 심한 충격이었음을 보여준다. 생선가게에서 우메가 겪은 이야기는 오타마가 안정되었다고 믿었던 현실을 뿌리 채 흔드는 사건이 되고 만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오타마에게 스에조에 대한 현실적 문제는 지금껏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분함’의 감정을 느끼게 한다. 아버지를 위해 모든 것을 인내하고 희생할 수 있다는 오타마의 삶에 처음으로 ‘분하다’라는 감정이 생겼다. 하지만 오타마는 분하다는 생각은 남들처럼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자신이 처해진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탓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한탄 할 뿐이었다. 그리고 오타마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신이 고리대금업자의 첩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분하다는 생각조차도 자신의 체념적 삶 속으로 사라지게 한다.

오타마는 철이 든 후로 만일 자신에게 여유가 생긴다면 아버지를 이렇게 헤드리고, 저렇게 헤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보았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집에서 이렇게 사시게 하는 것만으로도 평소의 소원을 이룬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기쁨에는 어떠한 쓸쓸한 것이 섞여 있었다. 그런 것이 없이 오늘 아침 아버지를 만났더라면 얼마나 기뻐할까 하며, 세상은 정말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음을 안

타깝게 생각했다.

お玉は物を弁えるようになってから、若し身に爲合せが向いて來たら、お父っさんをああもして上げたい、こうもして上げたいと、色々にも思っても見たが、今日の前に見るように、こんな家にこうして住まわせて上げれば、平生の願がかなったのだと云っても好いと、嬉しく思わずにはいられなかった。しかしその嬉しさには一滴の苦い物が交っている。それがなくて、けさお父っさんに逢うのだったら、どんなにか嬉しかろうと、つくづく世の中の儘ならぬを、じれったくも思うのである。(p.25)

오타마의 삶이 안정되면서 아버지께 자신이 원했던 많은 것들을 해드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기쁘지 않고 씁쓸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 그녀의 인생에 두 번의 배신은 그녀의 마음에서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었고 이 고통은 현실과 윤리 사이에서의 괴리(乖離)를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우선 현실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과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남에게 속임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자신의 인생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가며 어쩔 수 없이 겪는 아픔과 좌절은 안타까울 뿐이지만 한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체념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된 것이다.

작가 오가이 또한 군의로서 최고의 지위까지 오른 자체만을 보면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아픔과 좌절을 생각할 때, 그리고 오가이가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에 “참으로 어리석었어(ばかばかしい).”<sup>26)</sup>라는 말 한마디를 생각해 보면 세상의 일들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동안 가슴속에 숨죽이고 있던 어떠한 것이 깨어난 듯, 이제까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며 살았던 자신이 뜻밖에도 독립한 듯한 기분이 들어 오타마는 시노바즈 연못가를 밝은 표정으로 걸어갔다.

これまで自分の胸の中に眠っていた或る物が醒覺したような、これまで人にたよっていた自分が、思い掛けず獨立したような氣になって、お玉は不忍の池の畔を、晴やかな顔をして歩いている。(p.29)

26) 森鷗外 지음·장남호 역(1977)『시사일본명작시리즈④ 기러기(雁)』時事日本語社 p.350.

설령 참기 힘든 고통이라 해도 자신의 마음 속 하나에만 담아 두자고 결심했다. 그리고 이렇게 결심한 것과 동시에 지금까지 남에게 의지해 왔던 자신이 비로소 독립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よしやせつない思をしても、その思を我胸一つに疊んで置こうと決心した。そしてこの決心と同時に、これまで人にたよることしか知らなかったお玉が、始て獨立したような心持になった。(p.41)

이처럼 체념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적 고통으로부터 오타마를 지탱하게 만들었고 오타마의 자아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오타마가 자신의 삶에서 고통이 또 다시 시작되지 않게 하려면 스스로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서 생겨난 변화이다. 좌절과 고통의 삶 속에서 그것을 운명이라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설사 참기 어려운 심정이라고 해도 그 감정을 자신의 마음 한 구석에 접어둠으로써 오타마가 체념을 토대로 현실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오타마의 마음은 이렇다.

오타마는 썩곳 웃었다. “저는 이제 조금씩 강해질 거예요. 앞으로는 남에게 무시당하고만은 있지 않을 거예요. 장하죠?”

お玉はにっこりした。「わたくしこれで段々えらくなってよ。これからは人に馬鹿にせられてばかりはいない積なの。豪氣でしょう」(p.28)

위에서처럼 앞으로는 더 강해지고 바보취급을 당하지 않겠다는 오타마의 작정은 지금껏 좌절을 느껴온 오타마의 삶의 방향이 새롭게 변하고 용감하게 새로운 삶에 대응하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자아 각성으로 오타마는 스스로의 삶의 변화를 찾게 되고 그것은 이성애의 감정으로 발달하게 된다.

문득 거리를 오고가는 학생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중에 혹시나 믿음직한 사람이 나타나 자신을 지금의 굴레로부터 구해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상상에서 잠기는 자신을 불현 듯 생각했을 때는 깜짝 놀라는 것이다.

とうとう往來を通る學生を見ていて、あの中に若し頼もしい人がいて、自分を今の境界から救ってくれるようにはなるまいかとまで考えた。そしてそう云う想像に耽る自分を、忽然意識した時、はっと驚いたのである。(p.41)

오타마는 겨우 인생의 주인공은 자신임을 깨닫게 되지만 또 다시 창밖의 어떤 누군가가 자신을 구해주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 창밖의 의미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오타마가 외부 세계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탈출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오타마는 창밖을 지나가는 오카다에게 눈인사를 하는 정도였지만 ‘뱀 퇴치 사건’으로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면서, 오카다를 연모하는 오타마의 마음이 놀랍게 변화하는 사실에 그녀 또한 놀라게 된다.

오카다가 뱀을 퇴치해준 날의 일이었다. 오타마는 이제까지 눈으로만 인사를 나눴던 오카다와 가까이에서 말을 나누게 되자 자신의 마음이 스스로도 놀랄 만큼 급격하게 변화된 것을 느꼈다. 여자에게는 갖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사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물건이 있다. …<중략>… 오타마에게 오카다는, 지금까지 단지 갖고 싶은 물건이었으나, 이제 근방 바뀌어서 사고 싶은 물건이 된 것이다.

岡田に蛇を殺して貰った日の事である。お玉はこれまで目で會釋をした事しか無い岡田と親しく話をした爲めに、自分の心持が、我ながら驚く程急劇に変化して來たのを感じた。女には欲しいとは思いつつも買おうとまでは思わぬ品物がある。…<중략>… 岡田はお玉のためには、これまで只欲しい物であったが、今や忽ち變じて買いたい物になったのである。(pp.51-52)

오타마에게 오카다는 이제 단지 ‘원하는 물건’에서 ‘사고 싶은 물건’으로 의미가 바뀌고 있는데 그녀는 자신의 사랑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이후 오타마는 오카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행동에 자학하기도 하는데 이는 오타마가 지금껏 살아왔던 체념의 구도와는 정 반대의 의지가 서로 상호 작용함에 따라 일어나는 변민과 같등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그녀의 정신적 성장은 오타마의 행동과 내면을 성찰해가며 변해가고 있다. 또한 오타마의 적극적인 행동은 ‘뱀 퇴치 사건’의 보답이라는 핑계로 오카다와의 만남을 유도하고 있는 그녀의 심리적 작용을 잘 엿볼 수 있다. 마침내 스에조가 지바에 출장을 갔다 내일이나 모래쭝 돌아오게 될 거라는 말에 오타마는 오카다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

지금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몸이라고 생각하니 오타마는 기분이 몹시 유쾌했다. 그리고 이렇게 일이 척척 맞아떨어지며 진행되는 것이 최종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징조처럼 느껴졌다. 오늘만 오카다가 집 앞을 지나지 않을 리가 없다. 오고가면서 두 번이나 지나가는 날도 있기 때문에 어쩌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한 번은 못 본다 하더라도 두 번 다 못 볼 리가 없다. 오늘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분명히 말을 걸어 야해.

これからあすの朝までは、誰にも掣肘せられることの無い身の上だと感ずるのが、お玉のためには先ず愉快でたまらない。そしてこうとんとん拍子に事が運んで行くのが、終局の目的の容易に達せられる前兆でなくてはならぬように思われる。きょうに限って岡田さんが内の前をお通なさらぬことは決して無い。往反に二度お通なさる日もあるのだから、どうかして一度逢われずにしまうにしても、二度共見のがすようなことは無い。きょうはどんな犠牲を拂っても物を言い掛けずには置かない。(pp.59-60)

드디어 오카다를 만날 준비가 되었다. 설령 한 번을 놓치더라도 두 번째는 꼭 만날 수 있다는 확신 속에 오늘은 자신의 심정을 확실히 전하려는 결심을 하게 된다. 그녀는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무척 아름답게 보였고 그녀의 의지는 강하고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하고 가련한 오타마의 우연(偶然)으로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만다. 결국 오타마의 자아는 잠시나마 싹트기 시작했지만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그것은 좌절과 체념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자 했던 오타마는 ‘체념’이라는 마음의 안정을 표현하려던 오가이와 많은 부분 연관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이야기는 ‘고등어된장조림’과 ‘연못사건’이라는 우연(偶然)으로 인해 무참히 짓밟혀 버린다. ‘나’가 싫어하는 ‘고등어된장조림’ 반찬이 가미조 식탁에 올라오는 바람에 ‘나’는 오카다를 불러내어 산책을 함께 가게 되고 이로 인해 오타마와 오카다는 둘만의 시간을 가질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다. 또한 ‘연못사건’에서 오카다가 무심코 던진 돌에 맞아 기러기는 죽는다는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 오타마와 오카다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미리 정해놓고 그러한 사건을 사전에 설정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에는 『기러기』가 오타마라는 설정과 오카다에 대한 오타마의 사랑이 좌절과 체념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전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작가 오가이는 오타마를 통해 일본 근대사회의 현실에서 자신의 한계를 자각함으로써 다시금 현실과 소통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이

작품은 오타마라는 여성의 인간적 성장과정을 통해 오가이가 서구에서 습득한 근대적인 자아의식을 일본의 근대화란 현실과 직면해 자아성장을 서술해 나간다. 결국은 오타마의 불행한 운명을 『기러기』의 죽음으로 상징시킨 서정적인 작품으로 오가이의 현실세계에 대한 상실감을 나타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작가 오가이는 자신의 여성관을 아름다운 외모와 단정한 몸가짐 그리고 교양을 겸비한 오타마를 통해 구성하고 있다. 또한 부모를 위해서 자신의 희생 따위는 아랑곳 하지 않는 오타마의 강한 효심을 통해 작가 오가이 스스로가 자신의 행복보다는 가족을 위해 지금껏 열심히 살아왔음을 묘사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신이 처해져 있는 일본사회의 현실 속에서 세상일이 뜻대로 되지 않음을 알고 그것에 대한 좌절과 아픔의 한계를 오타마가 겪게 되는 우연(偶然)으로 인해 표현하고자 했다.

#### 4) 스에조(末造)

이 작품에서 스에조를 이야기하기 전에 『기러기』가 쓰인 그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스에조는 작품 속에서 표면적인 주인공의 역할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욕망에 젖어있는 평범한 남자로서 작가의 사상을 보이고 있는 인물이다. 고리대금업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어느 정도의 부를 가지게 된다. 그는 여성은 남성의 인생에 별로 의미가 없음을 생각하는 다른 남성과는 달리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작품 속 스에조가 오타마를 첩으로 들이는 것은 그 시대의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다. “메이지 3년에 만든 형법전 신률강령이 율령 제도를 부활해서, 첩을 아내와 동등하게 남편의 이혼에 해당하는 배우자로 한 일은 일찍부터 알려져 있다.”<sup>27)</sup> 이처럼 메이지 3년 형법에서는 첩도 아내와 똑같은 배우자로 대우하게 하였다. 메이지 16년 이 시기에 법률상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로 규정짓고 있었지만 처의 무능력함은 계속 계승되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메이지 13년 “오쓰네 같은 아무런 뒷배도 없는 처들의 입장을 가장 경시하고 첩을 두는 것에 대한 이의신청을 완전히 봉쇄한 시

27) 明治三年の刑法典新律綱領が律令の制度を復活し,妾を妻と同じく夫の二等親にあたる配偶者としたことはつとに知られている。(金井景子(1992) 前掲書 p.97.)

기였던 것이다”<sup>28)</sup> 또한 이 시대의 고리대금업자라는 직업이 서민들에게 얼마나 혐오스러운 존재였는지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스에조 아이들이 학교에서 고리대금업자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오타마의 하녀 우매가 생선을 사러 시장에 갔을 때도 사람들은 “이 집에서는 고리대금업자의 첩 따위에게는 팔 생선이 없다.”<sup>29)</sup>라고 까지 하며 홀대하며 업신여기기까지 하였다.

작가 오가이는 스에조를 4장에서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는 동경대학교 기숙사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심부름을 맡아 하는 사환이었다.

다른 사환들은 수업을 밤송이처럼 기르고 그 수업 사이로 입을 멍하니 벌리고 있는데, 이 남자는 언제나 깨끗하게 면도한 파르스름한 턱에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다. 옷도 다른 사람들은 지저분하게 입고 다녀도 이 남자만큼은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어떤 때는 도잔(唐棧:면직물의 하나)인가 뭔가 하는 것을 입고 앞치마를 두른 것을 본 적도 있었다.

ほかのはひげの栗のからのように伸びたなかに、口があんごりあいているのに、この男はいつもきれいにそったひげのあとの青い中に、くちびるがかたくむすばれていた。小倉副もほかのはよごれているのに、この男のはさっぱりしていて、どうかすると唐棧かなにかを着て前かけをしているのを見ることがあった。(p.8)

위에서처럼 스에조는 정확하고 예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환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스에조는 언제나 깔끔하고 단정하며 말쑥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신분이 낮은 사환이었지만 자신의 인생에 만족해하기보다 검소한 생활과 구두쇠 같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든 밑바닥 인생에서 벗어나려고 많은 노력을 하여 성공한 고리대금업자였다. 그는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고 어떤 일이든 적극적인 자세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인물로써 아내와 아이가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

그러면 나는 어떤가. 돈만 생긴다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젓비린내 나는 풋내기에게도 도련님이라 부르며 인사한다. 밝히고 차여도 손해만 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28) お常のような何の後ろ盾も待たない妻たちの立場を最も軽視し、蓄妾についての異義申し立てを完全に封鎖した時期だったのである。(金井景子(1992) 前掲書 p.97.)

29) 森鷗外(1971) 前掲書 p.22.

세상을 살아왔다. 매일매일 어디를 가든, 누구 앞에서든 남죽 앞드리고 설설 기었다.

そこでおれはどうだ。金のできるまでは、人になんといわれてもかまわない。乳くさい青二才にも、だんなとっておじぎをする。ふまれてもけられても、損さえしなければいいという氣になって、世間を渡って北。毎日毎日どこへいっても、だれの前でも、平ぐものようになってはいつくばって通った。(p.40)

스에조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망설임 없이 했다. 손해만 보지 않는다면 자존심 따위는 그에게 필요치 않았다. 스에조의 수학적 사고방식과 매사에 꼼꼼하게 일처리 하는 생활태도는 일본 근대화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고리대금업자의 비정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밑바닥 인생에서 스에조가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비참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다.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윗사람에게 굽실거리는 놈은 아랫사람에게 가혹하고, 약한 자들을 괴롭힌다. 술에 취하면 여자와 아이를 때린다. 나에게서 윗사람도 아랫사람도 없다. 나에게 돈을 벌게 해 주는 사람들 앞에서는 뉘죽 앞드려 긴다. 그렇지 않은 놈은 누구라도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다. 아예 상대도 하지 않는다. 신경도 안 쓴다. 때리거나 하는 쓸데 없는 수고는 하지 않는다. 그러한 쓸데없는 짓을 할 바에야 이자 계산이나 하겠다. 아내도 그런 식으로 다루어왔다.

世間のやつらにつきあってにるに、目上に腰の低いやつは、目下にはつらく当たって、弱いものいじめをする。酔って女や子供をなぐる。おれには目上も目下もない。おれに金をもうけさせてくれるもの前にははいつくばう。そうでないやつは、だれでも彼でもいっさいいるもないもおなじことだ。てんで相手にならない。うちやっておく。なぐるなんというよけいな手数はかけない。そんなむだをするほどなら、おれは利息の勘定でもする。女房をもそのあつかいにしていたのだ。(p.40)

이와 같이 스에조는 남의 눈을 의식하는 인물은 아니었다. 고리대금업자로 성공하기까지 그의 가치판단의 기준은 오직 돈이었다. 그에게는 돈을 벌게 해주는 사람만이 상전이고 윗사람이다. 작가 오가이는 이런 스에조를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정력을 한 곳에 쏟아 붓는다면 실제로 불가능한 일은 없을

지도 모른다.”

一匹の人間が持っているだけの精力を一事に傾注すると、實際不可能なことはなくなるかもしれない。(p.8)

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오가이가 의학뿐만이 아니라 문학에도 혼신을 다해 살아온 자신을 평가하는 것과 같다.

또한 스에조가 고리대금업자로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생활습관이나 품행을 오가이는 6장에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기생들과 어울린 적도 없거니와 요릿집의 술을 먹으러 다닌 적도 없었다. 기껏해야 고작 렌교쿠에서 국수를 먹는 정도가 꽤 큰 사치였다.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곳은 구경조차 못하고 살았다. 그것은 자신의 옷차림과 아내의 차림새에 균형을 맞추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내가 뭔가 해달라고 조르면 그때마다 스에조는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 당신과 난 처지가 달라. 난 교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라고 무시해 버렸다. 그 후 꽤 많은 돈이 불어나고부터는 스에조도 요릿집에 출입하긴 했지만 이것은 거의 회식이 있을 때뿐이었고 혼자 간 적은 없었다.

芸娼妓なんぞにかかりあったこともなければ、料理屋を飲んで歩いたこともない。蓮玉でそなを食うくらいがすでに奮發の一つになっていて、女房や子どもはよほど前まで、こうこうとき連れていってもらえなかつた。それは女房の身なりを自分のしたくにつりあうようにはしていなかつたからである。女房がなにかねだると、末造はいつも「ばかをいうな、てまえなんぞはおれとはちがう、おれはつきあいがあるから、しかたなしにしているのだ。」とってはねつけたのである。その後だいぶ金が生んでからは、末造も料理屋へ出はいりすることがあつたが、これはおおぜいの寄りあうときにかぎっていて、自分だけが客になつていくのではなかつた。(p.13)

위의 내용으로 보면 스에조는 너무나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탕한 생활과는 전혀 거리가 멀며 자신의 취미 하나 가지고 있지 않다. 사업상의 일을 제외하고는 근검절약이 습관화되어 있다. 아내와 아이와 밖에서 저녁을 먹어본 적도 없다. 심지어 아이에게 기모노를 해 입히는 것도 사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아내와 아이를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에조는 인색할 정도의 검소한 생활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사에 돈 굴릴 생각만 하던 스에조가 오타마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달

라졌다. 그는 오타마가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그녀가 지낼 집을 구하러 다녔다. 이 또한 꼼꼼하고 모든 일에 추진력 있게 밀어붙이는 스에조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스에조는 밤늦게까지 몸을 뒤척이며 두개의 집 중 어느 쪽으로 할까 곰곰이 생각했다. 옆에는 아이들을 재우려고 함께 누웠다가 잠이 들어 버린 아내가 큰 입을 헤 벌리고 여자답지 않게 코를 골았다. 남편이 빌려 준 돈의 이자를 계산하며 밤늦게까지 자지 않는 것이 보통이어서, 아내는 평소에 남편이 밤늦게까지 자지 않고 있어도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이었다.

末造は一晩床の上に寝ころんで、二つのうちどれにしようかと考えた。そばには女房が子どもを寝かそうと思って、自分もいっしょに寝入って、大きな口をあいて、女らしくないいびきをしている。亭主が夜貸し金の利まわしを考えて、いつまでも眠らずにいるのは常のことなので、女房はいつまで亭主が目をあいていようが、すこしも氣にはんぞはせぬのである。(p.11)

스에조는 밤잠을 못 이룰 만큼 오타마와의 만남을 흐뭇해하고 있다. 옆에 있는 아내가 커다란 입을 벌리고 코를 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스에조가 오쓰네에게 애정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만무하다. 스에조는 오타마를 맞으면서 자신이 처 이외에 다른 여자를 첩으로 맞으면 죄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냥 오타마에 대한 이야기를 아내인 오쓰네가 알게 된다면 그녀가 불평하며 칭얼대는 것이 귀찮고 그로 인해 아이들에게까지 알리게 되는 것이 신경이 쓰일 뿐이었다.

스에조는 아내란 ‘집에서 자식의 출산과 양육 그리고 일상생활을 유지하여 남성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보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오쓰네를 단지 살림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은 집안일을 문제없이 하고 남편에게 암전하고 불만을 갖지 않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이었다.

스에조는 오타마를 만나면서 스스로의 감정을 표현하며 자신의 여성관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오타마는 오랫동안 못 봤지만 그때는 아직 소녀티가 남아 암전하면서도 그 속에 고집스

러운 데가 있어서 꼭 껴안아주고 싶은 얼굴이었다.

あのお玉はだいぶ久しく見ないが、あのときはまだ子どもあがりであったのに、おとなしい中に意氣なところのある、ふるいつきたいような顔をしていた。(p.11)

깔끔한 이초가에서 머리에, 이런 자리에 나올 때 흔히 하는 짙은 화장도 하지 않은 거의 맨얼굴과 다름없었다. 그것은 상상했던 것과는 분위기가 전혀 다를뿐 아니라 더 아름다웠다. 스에조는 그 자태를 눈으로 빨아들이듯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깊은 만족을 느꼈다.

さっぱりとした銀杏返しに結って、こんな場合に人のする厚化粧なんぞはせず、ほとんど素顔といってもいい。それが想像していたとはまったくおもむきが変わっていて、しかもいっそう美しい。末造はその姿を目に吸いこむように見て、心の内に非常な満足を感じた。(p.16)

온순하고 아름다운 오타마를 보며 사랑스러워하는 스에조의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오타마의 미모는 어린아이티를 벗어난 어엿한 여인이 되었고 껴안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다. 게다가 수줍음과 얌전함 그리고 온순하기까지 한 오타마를 보면서 지금껏 느낀 적이 없는 환락을 느끼고 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스에조의 성격은 작가 오가이가 감히 생각조차 못했던 일들과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젊고 온순하며 게다가 아름답기까지 한 오타마를 차지하기 위해서 스에조의 추진력을 기반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사랑을 쟁취하고 있다.

스에조의 이런 모습들은 오가이가 자신의 청춘시절에 이루지 못했던 사랑에 대한 보상받고 싶은 심리에서 만들어진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작가 오가이가 스에조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리 대금업 쪽에서는 매우 엄하고 까다로운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스에조가 오타마에 관해서는 모든 온화한 수단을 다해서 거의 매일 밤에 무엔자카를 찾아와서는 오타마의 비위를 맞추었다. 이것은 언뜻 역사가들이 자주 언급하는, ‘영웅의 또 다른 일면’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金貸し業のほうで、あらゆるしゅんれつな性分をはたらかせている末造が、お玉に對しては柔和な手段のかぎりをつくして、毎晩のように無縁坂へ通ってきて、お玉のきげんをとっていた。ここにはちょっと歴史家のよくいう、英雄の半面といったようなおもむきがある。(p.18)

냉혈하고 비정한 고리대금업자 스에조는 오타마에게 만큼은 부드럽고 상냥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 매일 밤 스에조는 오타마를 찾아가서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비위를 맞추고 또 그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이처럼 스에조의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대목을 오가이는 '영웅의 또 다른 일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12장부터는 이런 스에조가 아내를 대할 때에는 통명스럽고 쌀쌀한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

“어찌된 필 어찌. 당신은 사람이 좋아서 남들이 쏘삭거리는 거야. 첩이니 만살림을 차렸다느니, 도대체 누가 그런 소릴 해.” 이렇게 말하면서 스에조는 흐트러진 머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보고, 어찌서 못생긴 여자들은 어울리지도 않게 머리를 올려 묶고 싶어 하는 것일까 하고 태평스런 생각을 했다.

「どうするにもおよばないのだ。おまえが人がいいもんだから、人にたきつけられたのだ。妾の、囲いものなのって、だれがそんなことをいったのだい。」こういいながら、末造はこわれた丸まげのぶるぶるふるえているのを見て、みにくい女はなぜ似合わない丸まげを結いたがるものだろうと、氣樂な問題を考えた。(p.31)

아내 오쓰네는 자신의 남편에게 첩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이를 재워 놓고 스에조를 기다린다. 그런 아내를 보며 스에조는 무언가 낚새를 차린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울면서 애원하는 아내의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다. 스에조는 매사 치밀하고 꼼꼼한 그의 생활 태도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기응변으로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또한 스에조가 신문에 나오는 어려운 말을 사용하면 어리둥절해 하는 오쓰네로서는 남편 스에조의 꾀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일시적인 것이라 얼마 가지 못한다. 치약을 사러나갔다 남편으로부터 받은 양산과 똑같은 것을 들고 있는 오타마를 보는 순간 그녀는 육감적으로 남편 스에조의 첩임을 깨닫게 된다. 스에조는 또 다시 아내와의 충돌을 겪게 되고 이 후로는 스에조가 지바로 출장을 떠나면서 오타마와의 관계는 멀어지고 이야기는 마무리가 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작품의 인물 스에조를 통해 작가 오가이와 닮은 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우선 아름다운 여성을 좋아하는 스에조와 작가 오가이의 여성관이 닮았음을 오타마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오타마를 첩으로 둔 스에

조의 모습에서 오가이가 첫째 부인과 이혼한 후 집안에서 일하던 어여쁜 여인 고다마 세키(兒玉せき)를 첩으로 삼았던 작가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작가 오가이가 고다마 세키를 첩으로 삼았던 때가 그의 나이 서른 살쯤이었다. 그것은 작품 속 스에조가 잔소리 심한 아내를 피해 오타마를 생각하며 그녀를 첩으로 맞았을 때 그의 나이 또한 서른 살 즈음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작가 오가이와 스에조는 상당히 많이 닮았다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환이라는 밑바닥 인생에서 고리대금업자까지 성공하는 스에조의 모습을 작가 오가이는 자신이 쓰와노한(津和野藩)의 전의(典醫)의 아들로서 고난과 좌절 그리고 체념을 겪으면서도 육군 최고의 군의총감이라는 지위까지 오르는 자신과 닮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작가 오가이는 자신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쟁취하는 스에조를 보며 오가이가 체념했던 자신의 청춘시절에 못 다한 사랑을 스에조의 삶에서 이루고자 한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 Ⅲ.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오가이의 작품 『기러기』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 분석하면서 작가 오가이의 인생체험이 이 작품에 어떻게 투영되어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메이지 13년 근대적 이상을 지니고 있던 오가이가 일본의 봉건적 상황 속에서 느꼈던 인생의 좌절과 체념을 여주인공 오타마(お玉)를 통해 고통과 처절로 나타내고 있는 작가의 의도와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등장인물 ‘나(僕)’, 오카다(岡田) 그리고 스에조(末造)를 통해 어떻게 실화를 토대로 쓰여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첫째, ‘나(僕)’에 대해 분석하였다. ‘나’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화자이자 남자주인공 오카다의 친구이면서 문학적 취미가 같은 동경대학 의학생이다. 무엇보다 작가 오가이가 자신의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자아를 외면적으로 표출시키기 위해 구성되어진 인물이다. 오가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좌절과 체념을 관찰자로서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으며 아름다운 여성을 사랑하고 문학을 사랑하는 취미가 같은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둘째로는 ‘오카다(岡田)’에 대해 살펴보았다. 작품에서 작가 오가이의 모습이 가장 많이 보이는 주인공 ‘오카다(岡田)’는 실제적으로는 작품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 못하는 남자주인공이다. 오카다는 작가 오가이와 같은 동경대의학부의 학생으로서 항상 모범적이고 품행이 단정하며 혈기 왕성한 젊은 청년이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그의 문학적 취미는 그와 오가이가 일본 근대의 엘리트 청년이었음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오카다는 오가이와 같은 아름다운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오가이의 소극적인 성격까지 닮고 있어 여자 주인공 ‘오타마’와의 만남이 ‘뱀 퇴치 사건’과 ‘스에조의 지바 출장’으로 인해 이루어졌지만 끝내 오카다는 그 자리를 피하고 만다. 이 소설에서는 오카다가 무심코 던진 돌에 맞아 죽은 『기러기』로 인해 오타마의 불행을 예시하면서 오카다는 ‘불행한 기러기도 있군.’이라는 외마디만 남기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독일로 떠난다. 여기에서도 먼 독일에서 일본까지 오가이를 찾아 온 엘리스라는 여성을 자신의 출세에 방해가 될까 걱정하여 독일

로 돌려보냈던 작가 오가이의 청춘시절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셋째, ‘오타마(お玉)’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작품의 여주인공으로 작가 오가이의 첩인 고다마 세키를 연상케 하는 여자이다. 항상 몸가짐이 반듯하고 아름다운 외모와 교양을 겸비한 오타마는 작가 오가이의 여성관에 알맞게 표현이 되어있다. 또한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자신을 희생하고 불행 따위는 아랑곳 하지 않는 오타마는 오가이가 모리가를 위해 희생하며 자신의 꿈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도 그것을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사는 오타마를 안타깝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작가 오가이 자신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에조가 가정이 있는 고리대금업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좌절과 고통을 느끼지만 끝내 체념이라는 굴레 속에서 다시 안정을 찾고, 거기에 일본 동경대학 의학생인 오카다를 만나 그녀의 자아의식을 깨닫고 구원을 희망하게 되지만 끝내 오카다로부터 좌절을 맛보게 된다. 그것은 작가 오가이가 ‘기러기의 죽음’으로 오카다와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암시한 것과 같다. 작가 오가이가 자신의 동료의 배신으로 인해 좌절을 느끼며 자신의 삶에서 체념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오가이는 일본 현실에 직면하며 자아를 깨닫고 한 인간으로 성장해 가려던 자신의 모습들이 일본의 봉건사회로부터 겪게 되는 상실감과 좌절로 인해 단념하고 한탄하게 되면서 그것을 오타마를 통해 자신의 체념의 과정들을 나타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스에조(末造)’에 대해 분석하였다. 스에조는 작품 속 주인공은 아니지만 사환이라는 보잘 것 없는 위치에서 고리대금업자로 부를 누리게 되는 욕망 있고 깔끔하며 예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남자이다. 오가이 역시 단정하고 정확한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육군 최고의 지위인 군의총감까지 오르게 되는 적극적이며 열정이 많은 작가이다. 메이지 13년의 일본의 봉건주의 사회에서 근대화로 넘어가는 과도기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스스로의 삶에 충실하고 자신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굶은일도 마다하지 않는 성격으로 아름다운 여성인 오타마를 첩으로 두기까지 한다. 이 내용에서도 작가 오가이가 자신의 첫째 부인과 이혼 후 어머니의 권유로 아름다운 여성인 고다마 세키를 첩으로 들이게 되었던 때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스에조와 오가이의 나이 서른 살쯤이었던 것으로 보아 소

설자체로는 픽션(Fiction)이긴 하지만 『기러기』라는 작품 속에 오가이의 실제 삶의 경험을 상당히 진하게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가이는 그저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만든 작품이 아니라 작품의 제1장 “오래전의 이야기다.”와 제24장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다 쓰고 나서 손꼽아 세어보니 벌써 35년이나 지났다.”라는 내용을 볼 때에 이 소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리얼리티(Reality)”<sup>30)</sup>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작품 『기러기』의 주인공을 오카다로 보고 작품의 화자를 ‘나’로만 보던 견해에서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 모두에게서 작가 오가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야기의 화자이면서 방관자적 관찰자로서 오가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나’, 남자주인공이면서 작가 자신임을 암시하는 ‘오카다’, 오가이 자신의 인생에서 체험했던 좌절과 체념을 그대로 보여주는 ‘오타마’ 그리고 오가이의 妻인 고다마 세키를 대신하여 오타마를 첩으로 두고 있으면서 어떠한 일이든 예리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이루어내는 스에조 모두 다 작가 오가이의 분신과 같다. 이렇게 『기러기』 작품 속 인물들에게서 작가 오가이의 인생이 역할을 분담하여 투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

30) 자연이나 현실의 사실 혹은 실재 따위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려는 경향을 띤 특성

## 【참 고 문 헌】

### 1. 한국문헌

#### 【단행본】

森鷗外 지음 · 장남호 역(1977) 『시사일본명작시리즈④ 기러기(雁)』 時事日本語社

#### 【논문】

權泰敏(1991) 「森鷗外の自我意識に關する研究」 日本學報 第27輯 韓國日本學會

魯解斗(2004) 「모리 오가이(森鷗外)의 『기러기(雁)』 考察-등장인물에 투영된 작가의 인생체험을 중심으로」 全南大學校 大學院

文惠敬(1989) 「森鷗外の 研究-『雁』에 나타난 女主人公 「お玉」를 中心으로」 建國大學校大學院

朴慶鎭(2002) 「모리 오가이(森鷗外)의 『기러기(雁)』에 나타난 남성인물 고찰」 嶺南大學校 教育大學院

朴允哲(1995) 「日本近代小説에 나타난 虛無主義 思想에 關한 研究」 聖心外國語專門大學 論文集第14輯

申貴淑(2004) 「森鷗外 작품 속에 나타난 女性像-시기별 특징을 중심으로」 中央大學校 大學院

安仁愛(1990) 「森鷗外研究-作品에 나타난 女性像을 中心으로」 建國大學校 大學院

嚴素賢(1999) 「『雁』における森鷗外の女性觀」 東亞大學校 大學院

李康熙(2014) 「모리 오가이(森鷗外)의 『기러기(雁)』 고찰-여주인공의 체념적인 자세를 중심으로」 中央大學校 教育大學院

李東熙(2007) 「모리 오가이(森鷗外)의 『기러기(雁)』에 나타난 여성인물」 嶺南大學校 教育大學院

李承姬(2005) 「모리 오가이(森鷗外)의 체념(諦念)의 의미고찰-기러기『雁』를 중심으로」 高麗大學校 教育大學院

鄭永德(1995) 「모리 오가이(森鷗外)의 『기러기(雁)』 考察」 韓國外國語大學校 教育

大學院

曹紗玉(1985) 「森鷗外 『雁』論」 培花論叢 第4輯 培花女子大學校

秦善美(2010) 「모리오가이(森鷗外)의 『기러기(雁)』 考察-등장인물의 묘사와 그 속에 담긴 작가의 삶」 嶺南大學校 教育大學院

崔癩壬(2003) 「모리 오가이(森鷗外)의 『기러기(雁)』論」 高麗大學校 大學院

韓惠英(2009) 「모리 오가이(森鷗外)의 『기러기(雁)』에 나타난 ‘체념’연구」 慶常大學校 教育大學院

### 【인터넷검색】

<http://www.tokyo-kurenaidan.com/ougai-gan1.htm>

(2016.9.27검색)

<https://ja.wikipedia.org/wiki/%E9%9B%81%E9%A2%A8%E5%91%82>

(2016.10.17검색)

## 2. 일본문헌

### 【단행본】

赤羽貞雄(1980) 『鷗外と女性像』 ほたる書房

稻垣達郎(1999) 『學藝小品 森鷗外』 明治書院

鷗外研究會編(1997.10) 『森鷗外『スバル』の時代』 双文社出版

岸田美子(1947) 『森鷗外小論』 至文堂

竹盛天雄(1968) 「(作品解説)雁」 『森鷗外必携』 學燈社

\_\_\_\_\_ (1976) 『雁』 『文藝讀本 森鷗外』 河出書房新社

福田清人(1992) 『人と作品(11) 森鷗外』 清水書院

森鷗外(1971) 「キタ・セクスアリス」 『森鷗外全集 (第1卷)』 筑摩書房

\_\_\_\_\_ (1971) 『森鷗外全集 (第三卷) 『雁』』 筑摩書房

吉野俊彦(1979) 『あきらめの哲學 森鷗外』 PHP文庫 PHP研究所

【논문·신문】

- 磯貝英夫(1987.7) 「森鷗外『雁』」 『國文學解釋と教材の研究』 學燈社 臨時増刊
- 金井景子(1992) 「『雁』一懷かしさのレトリック(森鷗外の世界<特集>)-(作品の世界)」 『國文學解釋と鑑賞 57(11)』 至文堂
- 秦行正(1998) 「『雁』(特集:森鷗外を読むための研究事典)」 『國文學解釋と教材の研究 43(1)』 學燈社
- 須田喜代次(1976) 「森鷗外『雁』試論」 國語通信
- 目野由希(2009) 「お玉の物語-森鷗外『雁』」 『國語と國文學 86(12)』 東京大學國語國文學會編 ぎょうせい

<ABSTRACT>

A study on 『Wild Goose』 of Mori Ogai

- The writer used the character as a projection of his  
own life. -

Kang, Eun Sil

Major in Japanes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a professor Kim, Sung Bong

Mori, Ogai(1862-1922) is one of the pioneers who lead modern Japanese literature. He produced many works of literature; during his roles as not only a soldier but also a critic, a translator, a novelist and a poet.

『Wild Goose』 is a novel that was published serially for two years, from September, 1911 to May, 1913, from Chapter 1 to 21 in the Magazine, *Subaru*. Chapters 22~24 were published as a separate volume, 『Wild Goose』 was finished in May 1915.

Ogai is a writer who wrote his own novel reflecting on his youth. Therefore, the body of this paper examined what the title 『Wild Goose』 may indicate about the story and background of his writing. Also, this paper studied how the writer's life was reflected in the characters, narrator 'T', Okada, Otama and Suejo, appearing in 『Wild Goose』.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is research:

First, narrator 'I' has many things in common with the writer Ogai. When the narrator 'I' looks back on his life, it is represented by Ogai's true life. Also, through narrator 'I', the writer shows his objective and realistic personality.

Second, Okada, who was a medical student in Tokyo University, is the main character and represents youthful Ogai in this novel. Okada is similar to the writer, Ogai who resigned his life for family and thought success was more important than love in his youth.

Third, through Otama, this novel shows the meaning of 『Wild Goose』. Otama awakes to real love, but she couldn't attain her love because of the death of a wild goose in this story. Also, through Otama's hopeless love, the writer shows failure and resignation in Ogai's youth.

Finally, Suejo who has a beautiful woman, Otama as a secondary wife, is similar to Ogai. In Ogai's life, he achieved whatever he wants for success in his youth. Through his writing, Ogai was living life vicariously through his character, Suejo.

This study reveals that Ogai's life experiences were projected as examined through the characters in Ogai's retrospective work, 『Wild Goose』.